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563-000036-01

본 단행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90706904201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 농어촌산업 상생협력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이진홍, 조광래, 박인태, 최병열, 서재순, 김희동

경기도농업기술원

본 단행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과제번호: PJ90706904201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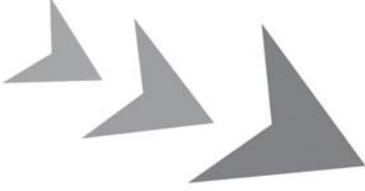
## 농어촌산업 상생협력 실태 및 활성화방안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이진홍*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조광래**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박인태***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최병열****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서재순*****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김희동*****

\* 031-229-5788, e-mail : jinhong5@gg.go.kr  
\*\* 031-229-2785, e-mail : cho228@gg.go.kr  
\*\*\* 031-229-5760, e-mail : pit62@gg.go.kr  
\*\*\*\* 031-229-5786, e-mail : choi2287@gg.go.kr  
\*\*\*\*\* 031-229-5787, e-mail : sjs3923@gg.go.kr  
\*\*\*\*\* 031-229-5711, e-mail : hd5609@gg.go.kr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어촌산업 당면정책, 지도, 연구자료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경영혁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머 리 말

최근 FTA,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촌은 더 이상 농업생산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클러스터 사업들이 전개되는 지역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를 선도하고 적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농업인들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서로 다른 사업주체와 영역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타산업 부문과의 관계형성은 농업과 농촌발전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항상 이종의 경계에서 이루어지 때문입니다.

이번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다루고자 『농어촌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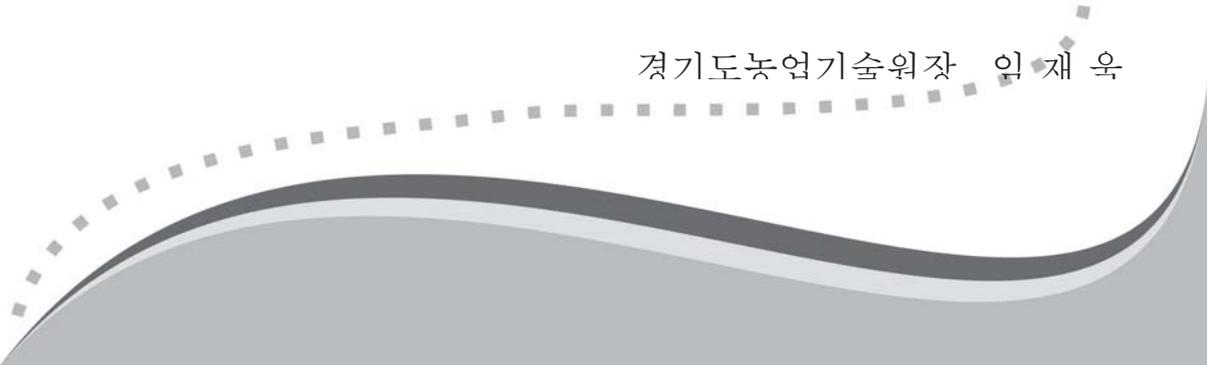
농어촌산업 당면정책, 지도, 연구자료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경영혁신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원에서 발간한 자료집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과 여타산업과의 상생협력이 촉진되고 더 한층 우리 농업 농촌이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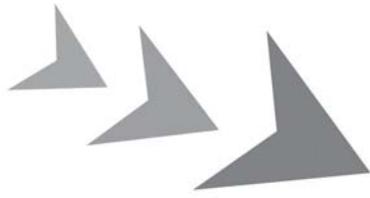
바쁜 가운데에도 본 연구의 수행에 귀중한 자문을 해 주었던 강원대학교 이병오 교수, 고려대학교 양승룡 교수, 농촌진흥청 이상영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최국일 서기관, 이동홍 사무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 11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임재욱







# 목 차

I. 농업농촌 환경변화 및 전망 .....	1
II. 농어촌산업 상생협력 실태 .....	8
1. 조사개요 .....	8
2. 실태조사결과 .....	10
III. 국내외 사례 .....	24
1. 일본의 친환경 자원과 상생협력 .....	24
2. 네덜란드의 지역혁신 .....	33
3.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국내사례 .....	46
IV. 시사점 및 활성화방안 .....	66
1. 농어촌산업 상생협력 및 혁신의 의의 .....	66
2. 주요과제 .....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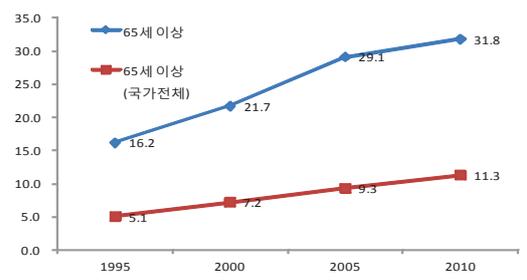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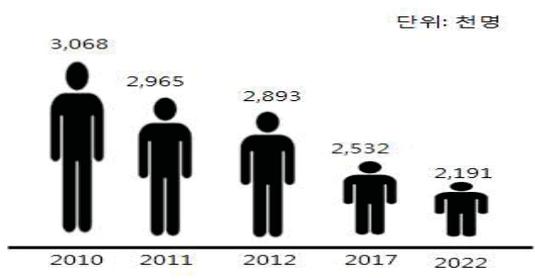
# 농어촌산업 상생협력 실태 및 활성화방안

## I. 농업농촌 환경변화 및 전망

### 1. 농업농촌 환경변화

■ 한국농업 농촌은 녹색혁명, 새마을 운동을 통해 식량자급 결실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상업농 육성, 개방농정 등 농업의 근현대화를 달성하였음.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1993년 60.3% → 2010년 77.5%로 17.2%p 증가
  - 2000년 초반까지 60%대를 유지, '03년~'06년 사이 큰 폭의 상승세(평균 3.7%p) 기록
  - 2010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제주 농가의 소득은 99.2%에 달하며, 경기(92.6%), 강원(84.7%) 순으로 조사
- 그러나 농업인력의 감소, 농가인구의 고령화 급진전으로 한국농업의 질적 양적 도약이 요구되고 있음
  - 65세이상 고령농 '05년 29.1→'10년 31.8%, 농가경영주 평균연령 05년 61→10년 62.3세



[농가인구 추이 및 전망]

[농촌 고령화율]

■ 이와 같이 성장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지만, 최근 FTA를 위시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등 국제적 갈등과 문제가 지속 되면서 글로벌 경쟁과 내수시장 확대에 뉴노멀 시대 도래 전망

- 한-미, 한-칠레 등 FTA 추진이후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 확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농수산업 분야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협상 및 타결이 예상되는 국가과의 FTA 체결은 글로벌 인적 물적 자본교류로 부가가치 창출확대에 기여예상

[ FTA추진 현황 ]

FTA 추진현황		
발효	협상중	공동연구/여건조성중
한-칠레 FTA	한-캐나다 FTA	한-일본 FTA
한-싱가포르 FTA	한-멕시코 FTA	한-중국 FTA
한-EFTA FTA	한-GCC FTA	한-중-일 FTA
한-ASEAN FTA	한-호주 FTA	한-MERCOSUR TA
한-인도CEPA	한-뉴질랜드 FTA	한-러시아 FTA
한-EU FTA	한-콜롬비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페루 FTA	한-터키 FTA	한-SACU FTA
한-미 FTA		한-베트남 FTA
		한-몽골 FTA
		한-중미 FTA
		한-말레이시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8개	7개	12개

자료 : 자유무역협정FTA홈페이지([www.fta.go.kr](http://www.fta.go.kr))

[한·미 FTA에 따른 품목별 생산액 생산액 및 취업자 감소 추정]

구 분	생산액 감소(억원)			취업자 감소(명)		
	5년차	10년차	15년차	5년차	10년차	15년차
곡물	46	153	240	750	2,448	3,824
채소/특작	301	457	538	2,899	4,351	5,111
과일	993	1,933	2,787	4,369	8,123	11,427
축산물	3,124	6,415	6,797	10,309	20,531	21,071
총계	4,465	8,958	10,361	18,327	35,453	41,432

자료 : 임정빈,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타결과 향후 대응전략”, 2012.

■ 로컬푸드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식품안전 및 환경,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 확대됨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시스템 전환과 위기의식 및 기회 증진 기대
  -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연시, 5~20% GDP 손실 (스틴보고서)
  - 온도, CO2 농도 모두 증가 시, 벼 잠재생산량 6.4~15.0% 감소 예상
- 국제 식량수급 측면에서는 브라질, 미국, 유럽, 캐나다,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가별 바이오 연료용 곡물사용량이 2000년 이후 매년 20%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바이오 연료용 곡물사용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옥수수 수급불균형이 초래
  -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kg당 비유초기 낙농용 배합사료 가격이 2000년에 247.6원에서 '04년 307.8원, '08년 429.6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 사료가격 급등문제는 국내 축산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

- 또한 국내외적으로 구제역, BSE 등 식품안전사고 다발생으로 안전관리 부담 증가, 서구적 식습관과 소비패턴으로의 변화, 한류 영향으로 한국 식문화 관심 증대 등으로 「농식품 산업 육성과 안전대책」 과제가 부각되고 있음
- 이와같은 국내외 여건 속에서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농업법인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가소득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0년 말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9,740개이며, 법인형태별 영농조합법인은 8,107개, 농업회사법인은 1,633개로 구성됨 : 운영주체별 구성비 : 출자자 공동운영(45.9%), 대표자 단독운영(39.9%), 출자자 개별운영 (14.2%)순임<sup>1)</sup>

[농업법인 종사자 현황(2010년 현재)] (단위: 개, 명, %)

법인수	종사자 합 계	상시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법 인 당 종사자수
		소계	상근출자자	상용근로자		
8,361	60,118 (100.0)	41,742 (69.4)	19,751 (32.9)	21,991 (36.6)	18,376 (30.6)	7.2

자료 : 통계청(2011)

## 2. 농어촌산업 육성배경

- 이와 같은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농업과, 전통 그리고 지역경제를 선순화시키고 농어촌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지역개발정책이 확산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EU에서는 농촌개발의 전략적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회원국 전략계획을 지원하는 형태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인 「LEADER 축」 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음. 지역활동가그룹을 조직화하여 지역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통한 농촌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특징적임
- 일본의 경우, 지역발전전략을 ‘균형발전’보다는 지역간 경쟁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유도 하는 전략을 확대하고 있음
  - ‘균형’ 대신 지역간 ‘경쟁’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지역간 격차 해소에 주력.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가 1990년대 말 혹은 2000년대에 들어 ‘지역의 개성있는 발전’으로 대체되어 ‘의욕있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지원, 추가적인 예산의 투입보다는 기존의 각 부처예산을 연계, 통합, 간소화하고 규제완화, 권한이양 진행

1) 농업법인 종사자는 60,118명이며, 상용근로자는 21,991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6.6%를 차지하고, 농업법인당 종사자는 7.2명 수준이며, 상시근로자 규모는 『4인 이하』 법인이 63.1%이며, 『5~9인』 법인은 26.2%로 나타남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에 부존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지역핵심 농산업을 중심으로 이들 클러스터에 혁신체계 구축과 네트워킹, 그리고 산업화와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이들 사업을 통해 농어촌산업육성을 지역개발과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한국농업경제학회, 2011).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농어촌산업 혁신지원]

구분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향토산업 육성 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지원 사업
사업기간	2005~2013	1997~2013	2008~2016	2005~2008
지원대상	지역주민, 기업체, 연구단체 등	농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클러스터사업단	농업인, 농산업체, 연구단체 등
사업내용	농산물, 특산물, 향토자원 개발, 문화관광, 지역이미지 마케팅생명건강, 교육인재 등 지역문화개발 종합 지원	농어촌부존 향토자원 개발 →1,2,3차산업연계·발전→지역경제활력증진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농축산물 생산·유통·가공
사업재원	균특회계 국고100%(2기)	균특회계 국고50% 지방비·자부담50%	균특회계/ 지역혁신계정 국고50%, 지방비50%(시설비:자부담20%)	국고50%, 지방비50%
지원금액	70개시군 5,800억원(3년간) SOC투자, 부지매입비, 시설물운영비 등 지원 제외	매년30개 향토자원 발굴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15억원)이내(3년간)	사업단별 평균 30억원 기본 3년지원 평가 후 추가지원(1~2년)결정	3년간 1,200억원
근거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삶의질 향상법 제31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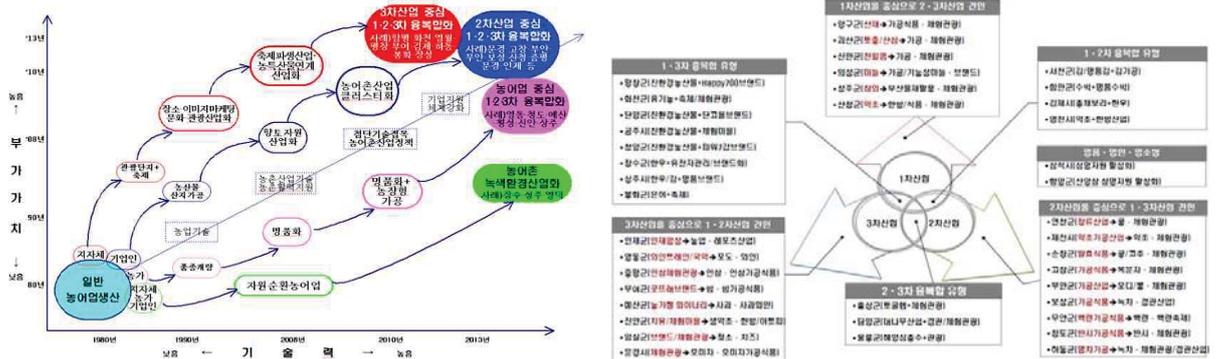
○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부처에서도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도모하고 있음

- 특히 이들 사업은 향토, 전통,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역특화 연고산업화 지원 거점연구기관설립, 지역별규제특례 적용, 특화사업발굴 및 발전에 주목적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역농어촌산업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제품개발력과 사업화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효과를 얻고 있는 실정임. 이과정 속에서 핵심적 역할은 농업기술 개발 및 산업화이며, 시장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연구개발 비즈니스 체계(R&BD) 또는 C&D로 전환되고 있음

-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지자체, 기업인, 농가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하여 1차,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발전로도매를 보유하고 있음

- 1차산업 즉 1)농어업 중심은 품종개발→명품화→ 농장형 가공사업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2) 2차산업 중심은 기업인을 중심으로 농산물 산지가공 → 향토자원 산업화 → 농어촌산업 클러스터화 형태로, 3) 3차산업 중심은 관광단지+축제 → 장소·이미지마케팅 → 축제파생산업 및 농특산물 산업 형태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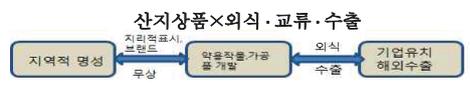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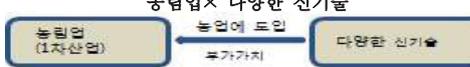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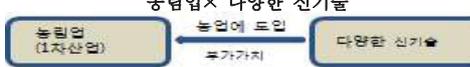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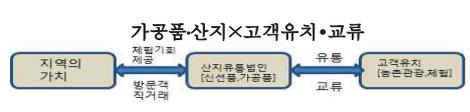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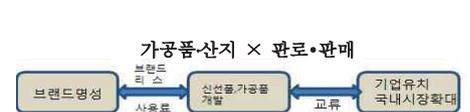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 3. 한국의 농어촌 기업 생태계의 의의

○ 농어촌기업 생태계 내에서 성과공유 및 확산전략을 통해 협력관계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혁신에서부터 제품혁신, 그리고 전략혁신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는 거래비용 최소화, 네트워크 기반 혁신촉진, 공익적 효과 증진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과공유방식은 공동투자법인 현금배분, 공동상표/특허 출원, 참여 농가 지원 납품가 조정, 신규사업 우선권 부여, APC·RPC 수매/판매가 조정, 신규사업 우선권, 납품가 조정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

[농어촌 기업생태계 가치사슬 체계 및 부가가치 증대]

유형	단계	기업생태계 비즈니스	부가가치 창출능력	기업생태계 효과
지역부존자원개발형	시장(정신)		농산부산물 부가치 상품개발·수출 - 오가피열매이용, 막걸리 개발 등	[거래비용 최소화] · 농업법인 공동투자 [네트워크 기반 혁신촉진] · 생산유통 협력으로 신제품 개발역량 확충 [공익적 효과] · 경사지농업 보호
자원순환형	지역(성주)		우수, 품질 좋은 농특산물개발 (참외시장장악)	[거래비용 최소화] · 농협과 지자체공동투자 · 부산물티비화로 생산비절감 [공익적효과] · 부산물 티비화로 농업환경개선
	개별기업(여주)		생산비절감(난방비)	[거래비용 최소화] · 목재펠릿 농업적이용 공동시행 [공익적효과]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이용형	개별기업(증평)		우수, 품질 좋은 농특산물개발 (묘삼상품화)	[거래비용 최소화] · 정정인삼 공동연구 · 묘삼생산비 절감 [공익적효과] 국민건강증진
	지역(전북)		분자농업 산업화 (생의약품)	[거래비용 최소화] · LED 농업적 이용 공동연구 [네트워크 기반 혁신촉진] · LED 제조업체와 대학과의 협력으로 지역역량강화 [공익적효과] 온실가스 감축
농산물브랜드명성형	시장(철원)		브랜드 쌀수출/ 친환경학급급식시장 비즈니스 전개	[거래비용 최소화] · 직거래로 유통비용 절감 [네트워크 기반 혁신촉진] · 수출업체, 식품업체, 소비자와의 네트워크로 지역사업역량강화 [공익적효과] 친환경으로 농업환경개선
	시장(이천)		브랜드 쌀 이용 고부가치 농식품 개발/판매 [HMR, 식혜, 화장품 등]	[거래비용 최소화] · 농협과 지자체 공동투자 [네트워크 기반 혁신촉진] · 식품업체, RPC, 기술센터 네트워크로 지역역량 혁신 [공익적효과] · 농가소득증진, 일자리 창출

자료 : 이진홍외(2011)

#### 4. 한국농업의 상·하부구조 변화전망

■ 농업의 단순보호가 아니라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1차, 2차, 3차산업의 융복합화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통해 농업농촌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내수기반을 강화하고, 뉴노멀 기술경영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의 범위를 뛰어 넘는 ‘농어촌산업’으로 전환 및 확대

- 6차산업화, 농상공연대로 지역적 산업적 지평 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
- 휴양, 일자리 등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 중요성 부각으로 지역산업 발전토대 형성

■ 정부보조 지원 농업에서 대규모 투자 농업으로 전환 전망

- 농업법인, 농지규제 완화로 첨단농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8,361법인, 60,118명
- 농촌농업, 근교농업 중심에서 도시농업으로 전환
- 녹색산업, Bio산업(동물복제, 줄기세포 등)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

■ 대내외 시장과의 아이디어, 자본의 교류로 혁신적인 상품개발 및 산업화

- 개발방식 혁신 : R&D → 기술이전 사업화(R&BD) → 융복합 산업화 시스템(C&D)
  - 시장성공율에 기반한 신규 기술/제품개발 중시

■ 도시 유희인력의 이도향촌으로 농어촌 인력구조 개편 및 인력양성 강화

- 귀농귀촌가구수 : 2001년 880호 → 2005년 1,240호 → 2011년 6,500호
- 1인창조기업 및 벤처농 확대 전망

■ 지역과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수요 정책 부각

	현 재		예 상 수 요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생산중심</li> <li>○ 대형 출하처 중심 유통</li> <li>○ 농업의 내발적 발전</li> <li>○ 단순 농업기술</li> <li>○ 농지규제</li> <li>○ 친환경농업 육성</li> <li>○ 탄소집약농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3차산업으로의 고부가가치 다각화</li> <li>○ 로컬푸드 시스템 확산</li> <li>○ 신연계사업의 확대 발전</li> <li>○ IT, BT/NT 등과의 융복합 기술사업화</li> <li>○ 농지규제 완화</li> <li>○ 농식품 안전관리 정책 강화</li> <li>○ 저탄소농업 육성</li> </ul>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거주공간</li> <li>○ 교육/복지/문화 열악</li> <li>○ 국토계획법 하위개념</li> <li>○ 지역 자원 가치화 결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과 도시민의 공생, 상생</li> <li>○ 농촌 선별적 복지타당성 증대</li> <li>○ 농업·농촌개발계획의 연계</li> <li>○ 지역 유무형자원의 개발</li> </ul>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농업종사자</li> <li>○ 농업법인, 전업농</li> <li>○ 임대농, 소농</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농/귀촌 전문인력</li> <li>○ 창업농(1인 창조기업)</li> <li>○ 겸업농, 도시농</li> </ul>

## II. 농어촌산업 상생협력 실태

### 1. 조사개요

#### 가. 조사목적

- 농어촌산업의 상생 협력 실태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수행하는 ‘농촌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농어촌기업의 자원공유, 신뢰구축, 혁신역량 촉진 실태를 조사하여 농촌산업의 건강한 상생협력관계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농촌산업의 건강한 상생협력 관계 형성실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농업분야에도 「산업융합 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농어촌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적 체계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또한 농어촌자원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존재하는 자원(농특산물, 농산부산물 등)을 활용, 새로운 노하우나 기술을 접목시켜 신제품/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농어촌기업의 육성 및 「업종이 다른 제조업체, 유통업체, 신기술 보유업체, 대학, 컨설팅업체, 고객, 농산업체, 농업인」 가치사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또한 본 조사는 에너지절감기술이용 새로운 농특산물 개발, 신소재, 의약품, 화장품, 가공품 개발,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이용 산업화 등으로 한정함

#### 나. 조사표본

##### ■ 표본설계(Sample Design) 및 표본추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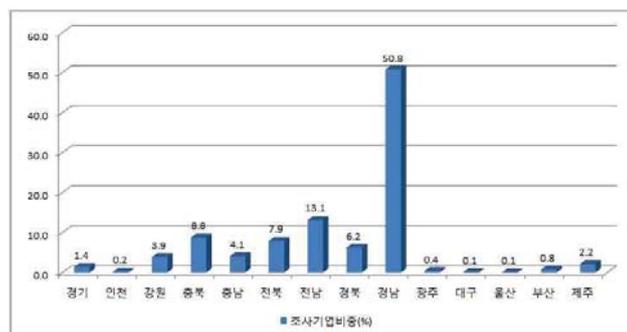
- 전국 농림수산식품분야 농어촌기업 중 랜덤형식(Random)의 임의추출로 정부지원 기업 1,5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설정을 하였음
  - 그중에서 조사표가 회수된 기업체 수는 155개로 평균 10% 대의 회수율을 보임
  - 신뢰도(confidence)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pm 1.51\%$ 임

[표본조사 대상 농어촌기업 현황]

	조사 기업수	산업형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1차	2차	3차	1,2차 산업	2,3차 산업	1,3차 산업	신활력 사업	향토산업	기타 사업	없음
경기	22	2(9.1)	17(77.3)	2(9.1)	1(4.5)			0(0.0)	1(4.5)	11(50.0)	10(45.5)
인천	3	0(0.0)	3(100.0)	0(0.0)				1(33.3)	1(33.3)	0(0.0)	1(33.3)
강원	61	0(0.0)	56(91.8)	5(8.2)				21(34.4)	11(18.0)	21(34.4)	8(13.1)
충북	137	4(2.9)	129(94.2)	4(2.9)				9(6.6)	13(9.5)	47(34.3)	68(49.6)
충남	64	2(3.1)	60(93.8)	2(3.1)				12(18.8)	18(28.1)	16(25.0)	18(28.1)
전북	124	0(0.0)	115(92.7)	9(7.3)				15(12.1)	28(22.6)	49(39.5)	32(25.8)
전남	205	0(0.0)	187(91.2)	18(8.8)				36(17.6)	26(12.7)	72(35.1)	71(34.6)
경북	97	0(0.0)	88(90.7)	8(8.2)		1(1.0)		29(29.9)	8(8.2)	45(46.4)	15(15.5)
경남	792	1(0.1)	776(98.0)	14(1.8)			1(0.1)	28(3.5)	18(2.3)	143(18.1)	603(76.1)
광주	6	0(0.0)	6(100.0)	0(0.0)				0(0.0)	3(50.0)	1(16.7)	2(33.3)
대구	2	0(0.0)	2(100.0)	0(0.0)				0(0.0)	0(0.0)	1(50.0)	1(50.0)
울산	1	0(0.0)	1(100.0)	0(0.0)				0(0.0)	1(100.0)	0(0.0)	0(0.0)
부산	12	0(0.0)	12(100.0)	0(0.0)				0(0.0)	1(8.3)	6(50.0)	5(41.7)
제주	34	3(8.8)	25(73.5)	6(17.6)				3(8.8)	4(11.8)	18(52.9)	9(26.5)
합계	1560	12(0.8)	1477(94.7)	68(4.4)	1(0.1)	1(0.1)	1(0.1)	154(9.9)	133(8.5)	430(27.6)	843(54.0)

- 지역별로는 경남 50.8%, 전남 13.1%, 충북 8.8%, 경기 약 1.4% 등의 조사지역 분포를 이루고 있음
- 산업형태별로는 대부분 2차산업 중심으로 약 94.7%이며 다음으로 3차산업 4.4%, 1차산업 0.8% 수준임
- 지원형태별로는 정부지원 기타사업이 27.6%이며, 다음으로 신활력사업 9.9%, 향토산업 8.5% 등 순임

[정부지원 농어촌기업 조사표본 비율]



#### 다. 조사방법

- 조사기간 : 2012년 1월 ~ 5월
- 조사기업수 : 정부지원 농어촌기업 1,560개 업체 중 155개 업체
- 조사방법 : 우편설문조사
- 조사범위

- 조사범위는 지역적으로 전국 농어촌지역이며, 산업분류 업종으로는 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에 의해 음식료, 섬유, 의복/모피,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 펄프/종이, 출판/인쇄, 코크스/석유정제품, 화합물/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유리,도자기 등), 1차금속(철강 등), 조립금속, 기타기계/장비, 컴퓨터/사무용기기, 전기기계/전기 변환장치(축전지,전구,조명장치등),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반도체 등),의료/정밀 광학/시계, 자동차/트레일러, 농축산업 등임.
- 농어촌산업 유형으로는 에너지절감기술이용 새로운 농특산물 개발, 신소재, 의약품, 화장품, 가공품 개발, 신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 이용 산업화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한정하였음

라. 주요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협력체계의 구축필요성 및 시급성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협력체계 촉진 위한 조건들의 생각 정도
	협력사업 도입시급 분야
협력관계 선호도	융복합 촉진 협력관계 우선분야
	협력교류 촉진 위한 우선적 지원
협력관계형성의 중요도 및 유형	협력사업의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의 효과적 협력방식
	지역의 중요협력기업 분야
자원공유 형태 및 내용	융복합 촉진 자원공유 형태
	파트너 기업의 지원 사항
	파트너 기업 기술지원 주 형태
	파트너기업의정보제공 종류
협력 갈등요인	협력파트너 간 협력 부진 경우
	지역 주체들의 협력 장애요인 중요도
협력관계 유지 기업	주력 산업업종
	주협력관계 세부업종
	부협력관계 세부업종
	세부업종 협력관계 유지 평균기간
	지역 산업화의 단계 정도
	지역 산업화의 핵심분야
	지역의 융복합화 형태

마. 분석방법

- 기본적으로 기술통계,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문항에 따라 요인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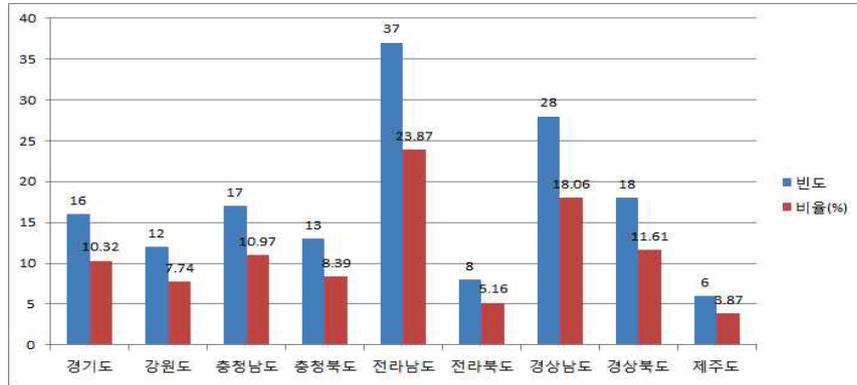
2. 실태조사결과

가. 농어촌기업의 경제활동 현황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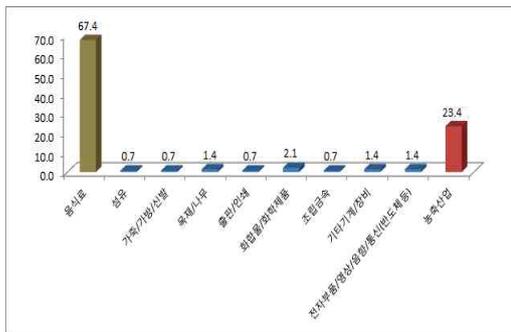
- 전체 농어촌기업 155개업체 중 전라남도 지역이 23.8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남 18.06%, 경북 11.61%, 충남 10.97%, 경기 10.32%, 충북 8.39%, 강원 7.74%, 전북 5.16%, 제주 3.87% 순으로 나타났음

[농어촌기업 실태조사 응답 지역 및 기업체 수] (N=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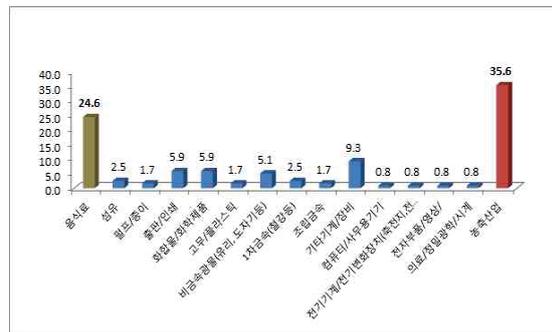


- 농어촌산업 생태계에 참여하는 농어촌기업은 음식료품업 67.3%으로 대부분이며, 다음으로 농축산업 23.4%, 기타 순임
- 농축산업의 협력업종은 음식료품업의 비중이 높으며, 나머지 업종은 아주 미미한 수준임

(N=141)



[농어촌기업 주요업종 분포]



[농어촌기업 협력업종 분포]

2) 신시장 창출 및 소득제고 활동

- 신시장 창출 및 소득제고를 위한 협력기업은 ‘마케팅전문기업’이 47.1%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기술보유기업’ 25.8%, ‘경영노하우 보유기업’ 18.1%, ‘대량생산능력 보유기업’ 9.0% 순으로 나타났음

[협력활동 대상기업]

기업 분야	빈도	퍼센트
신기술보유기업	40	25.8
마케팅전문기업	73	47.1
경영노하우 보유기업	28	18.1
대량생산능력 보유기업	14	9.0
전체	155	100.0

12  농어촌산업 상생협력 실태 및 활성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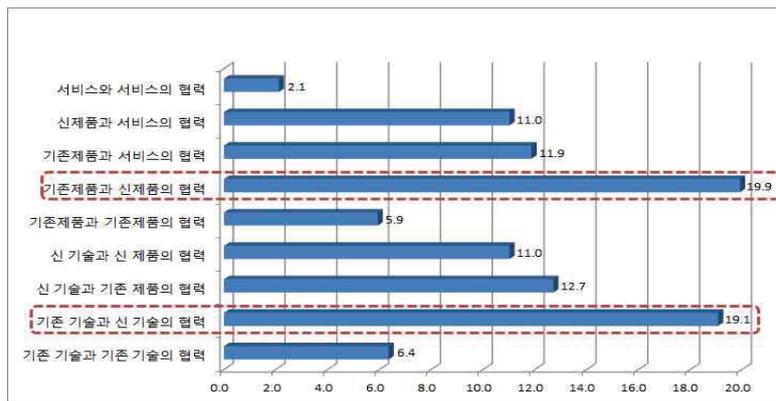
- 신시장 창출 및 소득 제고에 효과적인 협력활동을 살펴본 결과, 마케팅 협력활동이 49.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휴활동(30.3%), 계약생산활동(17.4%), 분업활동(3.2%)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기업 협력활동]

	빈 도	퍼센트
제 휴	47	30.3
분 업	5	3.2
마케팅협력	76	49.0
계 약 생 산	27	17.4
기 타	0	0.0
전 체	155	100.0

- 농어촌기업의 협력관계는 대부분 기존 제품생산 기업과 신제품 생산기업의 협력비중이 19.9%로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기존기술 보유기업과 신기술 보유기업의 협력비중이 19.1%임 - 이외에 신기술과 기존제품 12.7%, 기존제품과 서비스의 협력 11.9%, 신기술과 신제품의 협력 11.0%, 신제품과 서비스의 협력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농어촌기업의 협력관계(N=155)] (단위 : %)



3) 농어촌기업 생태계 발전수준

- 농어촌산업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주 경제활동을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측면에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중간수요를 거쳐 최종 생산하는 업종 대부분은 협력기간이 1~2년 (26.5%), 5년 이내(38.6%), 5-10년(23.4%)이며, 특히 중간수요는 농산물 및 부산물 재배업이고 최종적 수요는 농식품 제조업으로 나타났음(76.47%)

[농어촌기업 협력기간]

(N=132)

구 분		농어촌산업 분류				전 체
협력기간	중간수요	농산물 재배업, 신재생 에너지업	농산물 및 부산물재배업	농축산업	농업/농촌자원	
	최종수요	기능성 농산물 생산업	농식품 제조업	바 이 오 에너지산업	농촌관광 산업	
1~2년	빈도	3	27	1	4	35
	백분율	8.57	77.14	2.86	11.43	100
5년이내	빈도	4	39	1	7	51
	백분율	7.84	76.47	1.96	13.73	100
5~10년	빈도	2	22	3	4	31
	백분율	6.45	70.97	9.68	12.9	100
10년이상	빈도	5	8	1	1	15
	백분율	33.33	53.33	6.67	6.67	100
합계	전체	14	96	6	16	132

○ 농어촌산업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주 경제활동을 산업화 성숙도 측면에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중간수요를 거쳐 최종 생산하는 업종 대부분은 도입기(41.6%) 또는 성숙도(46.7%)에 놓여 있으며, 특히 중간수요는 농산물 및 부산물 재배업이고 최종적 수요는 농식품 제조업으로 나타났음(72.2%)

[농어촌기업 생태계의 기술, 제품 및 서비스 가치사슬 체계]

(N=137)

구 분		농어촌산업 분류				전체
산업화 성숙도	중간 수요	농산물 재배업, 신재생 에너지업	농산물 및 부산물 재배업	농축산업	농업/농촌자원	
	최종 수요	기능성 농산물 생산업	농식품 제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농촌관광산업	
도입기	빈도	7	41	4	5	57
	백분율	12.28	71.93	7.02	8.77	100
성장기	빈도	5	47	3	9	64
	백분율	7.81	73.44	4.69	14.06	100
성숙기	빈도	2	11	0	1	14
	백분율	14.29	78.57	0	7.14	100
쇠퇴기	빈도	0	0	0	2	2
	백분율	0	0	0	100	100
합계	전체	14	99	7	17	137

### 나. 농어촌기업의 상생협력에 관한 인식

- 농어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지역에서 신기술 보유기업, 마케팅전문기업,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산업분야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농어촌기업 대부분은 ‘매우 필요하다’에 약 50.0% , ‘필요하다’에 37.7% 인 것으로 나타났음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내 용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협력 체계 필요성	매우 필요하지 않다	14	9.0	9.1
	필요하지 않다	2	1.3	1.3
	보통	3	1.9	1.9
	필요하다	58	37.4	37.7
	매우 필요하다	77	49.4	50.0
	합계	154	99.4	100.0

- 농어촌 기업의 협력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살펴본 결과, 자금지원이 31.9%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마케팅 활동(26.8%), 기술개발(19.8%), 시설투자(16.4%), 원자재 공동구매(3.7%), 기타(1.3%)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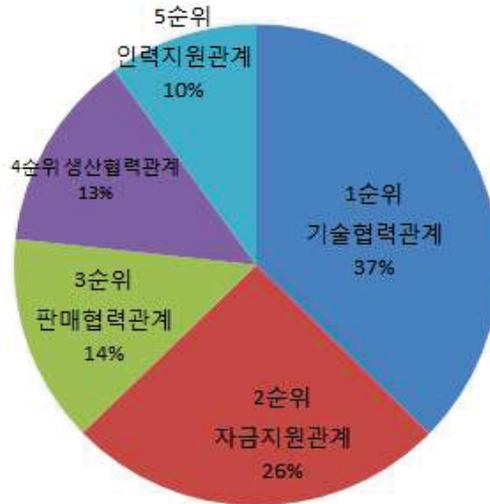
- 이외에도 작목별 계열화사업, 물류지원사업, 시설공동이용사업, 인력지원사업, 정보 및 노하우 지원사업 등에서 협력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협력사업 분야에 대한 시급성 인식]

(복수응답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기술개발	59	19.0	19.8
마케팅활동	80	25.8	26.8
자금지원	95	30.6	31.9
원자재 공동구매	11	3.5	3.7
시설투자	49	15.8	16.4
기타	4	1.3	1.3
합계	298	96.1	100

- 또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분야에 대해 살펴본 결과, 농어촌기업 대부분은 기술협력관계가 37.4%로 1순위를 기록, 다음으로 ‘자금지원관계’ 25.4%, ‘판매협력관계’ 14.0%, ‘생산협력관계’ 13.3%, ‘인력지원관계’ 10.0% 순으로 나타났음.



[지속적인 협력관계 선호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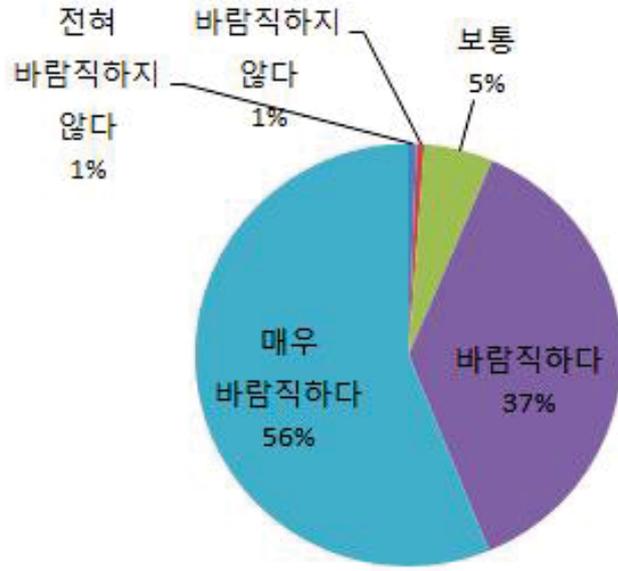
- 농어촌기업의 협력과정 속에서 새로운 신기술과 정보의 교류 정도는 아주 중요하다.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에 살펴본 결과, ‘자금지원’이 4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술타당성 검토 지원’ 23.9%, ‘경제성 검토 지원 등’ 19.4%, ‘세제혜택’ 4.5, ‘행정적 법제적 자문’ 3.2% 순으로 나타났다.

[협력과정에서의 기술 및 정보 교류의 지원정책]

구 분	빈 도	비중(%)
자금지원	76	49.0
세제혜택	7	4.5
행정적 법제적 자문	5	3.2
기술타당성 검토 지원	37	23.9
경제성 검토 지원 등	30	19.4
합계	155	100.0

- 이와 같이 농어촌기업이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여타 산업과 공유하며 상생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의 바탕 아래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매우 바람직하다’가 5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바람직하다’가 37.4%, ‘보통’이 5.2%, ‘바람직하지 않다’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가 각각 0.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n=155)



- 이와 같은 상생적 협력관계는 협업방식과 협력기업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협력기업은 신기술보유기업과 마케팅전문기업이 중요하며 협업방식에서는 제휴방식과 마케팅협력방식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협업방식과 협력기업별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집단간	집단내	중요도	F값	P값
협업방식유형	제휴	0.185	0.48	0.6966
	분업	0.093		
	마케팅협력	0.161		
	계약생산	0		
협력기업종류	신기술보유기업	0.493*	4.53***	0.0045
	마케팅전문기업	0.243		
	경영노하우보유기업	-0.091		
	대량생산능력 보유기업	0		

주 : \*\*\*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다. 농어촌기업 신뢰구축 실태

1) 신뢰적 자본

○ 농어촌기업의 신뢰구축을 위한 유무형 자원공유 매개체는 신시장 공동개척이 20.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공동신제품 개발(17.2%), 기술교류 및 공유(15.9%), 공동기술개발(14.8%), 기계설비 공동이용(10.3%), 공동으로 제품시험 및 테스트(7.4%),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입찰(6.9%), 공동구매(6.6%) 순으로 나타났음

- 즉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 신제품개발, 기술교류 및 공유 관계 속에서 유무형 자원 공유가 신뢰구축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유무형 자원공유 실태]

자원공유 매개형태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유효비중%	비중%	
공동기술개발	56	14.8	12.0	36.1
공동신제품 개발	65	17.2	14.0	41.9
기술교류(공유)	60	15.9	12.9	38.7
공동구매	25	6.6	5.4	16.1
신시장 공동개척	79	20.9	17.0	51.0
설계도면 제공	0	0.0	0.0	0.0
컨소시엄 구성(공동입찰)	26	6.9	5.6	16.8
기계설비 공동이용	39	10.3	8.4	25.2
공동으로 제품시험(테스트)	28	7.4	6.0	18.1
합계	378	100.0	81.3	243.9

주 : 복수응답임

○ 농어촌 기업의 신뢰적 자본 축적 실태를 살펴본 결과, 농산업체 또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기술지도가 1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금지원(14.4%), 영업정보 제공(11.9%), ‘정보화지원(10.8%), 경영지도(10.4%), 실비대여(6.3%) 형태로 신뢰적 자본이 축적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원자재 제공, 자본참여, 수출지원이나 해외진출지원 등의 비중은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촉진이 필요한 실정임

[신뢰적 자본 공유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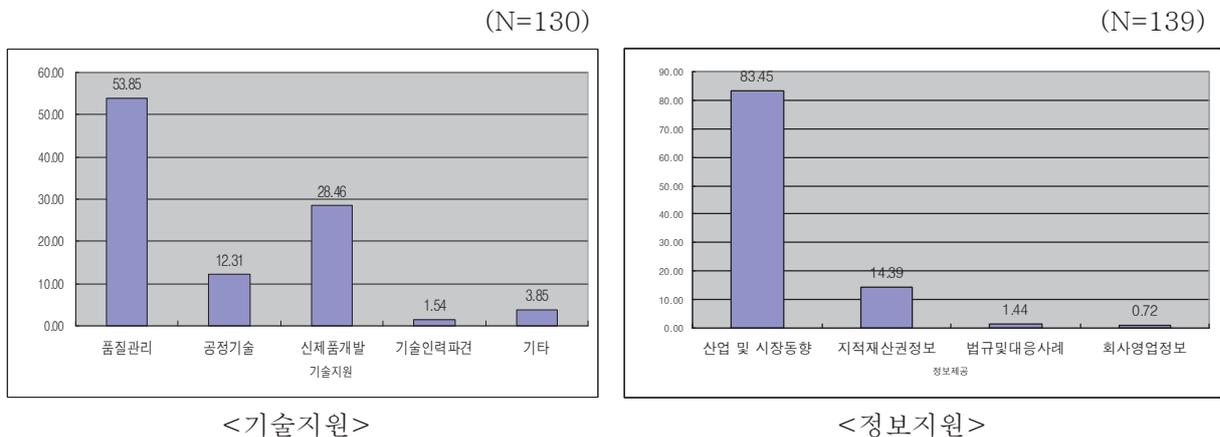
신뢰적 자본형태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유효%	%	
기술지도	90	17.0	11.6	58.1
경영지도	55	10.4	7.1	35.5
자금지원	76	14.4	9.8	49.0
융자보증	23	4.4	3.0	14.8
원자재 제공	31	5.9	4.0	20.0
설비대여	33	6.3	4.3	21.3
영업정보 제공	63	11.9	8.1	40.6
자본참여	24	4.5	3.1	15.5
인력파견	21	4.0	2.7	13.5
수출지원	31	5.9	4.0	20.0
정보화지원	57	10.8	7.4	36.8
해외진출지원	24	4.5	3.1	15.5
합계	528	100.0	68.1	340.6

주 : 복수응답임

2) 기술 및 정보의 지원

- 신뢰적 자본을 축적함에 있어 기술과 정보의 지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기술지원은 ‘신제품개발 기술지원’이 37.4%로 가장 높았고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과 지도’는 34.3%, ‘공정기술 지원’ 13.0%, ‘기술인력의 파견’ 10.0%, 기타 5.2% 순으로 나타났음. 이외에도 판매유통지원, 마케팅지원, 교류회, 수출지원에 대한 지원형태도 나타나고 있음
  - 정보 제공은 ‘사업동향 및 국내 외 시장전망이 37.0%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정보(26.0%), 관련산업 법규 및 대응사례(20.1%), 회사 영업정보(15.5%) 순으로 나타났음. 이외에도 시장이 원하는 포장 디자인 및 유통기업정보에 대한 제공도 나타나고 있음

[기술 및 정보지원 실태]



3) 생태계 유형별 신뢰구축 실태

- 유무형 자원공유 기업생태계는 농산물 및 부산물 재배업과 농식품제조업의 생태계 구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축산업과 바이오 에너지산업 그리고 농산물 재배업/신재생에너지업과 기능성 농산물 생산업 등의 순으로 타나고 있음
- 농어촌 기업생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무형 자원 공유는 공동기술개발(38.5%), 공동신제품 개발(25.2%), 기술교류및공유(20.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어촌기업의 유무형 자원공유 형태]

(N=135)

생태계		유무형 자원 공유										전체
중간수요	최종수요	공동 기술 개발	공동 신제품 개발	기술 교류 (공유)	공동구매	신시장 공동 개척	설계도면 제공	컨소시엄 구성	기계설비 공동이용	공동 제품 시험		
농산물재배업 /신재생 에너지업	기능성 농산물 생산업	빈도	5	1	3	1	2	0	0	0	0	12
	백분율	41.67	8.33	25	8.33	16.67	0	0	0	0	100	
농산물/ 부산물재배업	농식품 제조업	빈도	38	26	19	3	9	0	2	1	1	99
	백분율	38.38	26.26	19.19	3.03	9.09	0	2.02	1.01	1.01	100	
농축산업	바이오 에너지 산업	빈도	4	1	2	0	0	0	0	0	0	7
	백분율	57.14	14.29	28.57	0	0	0	0	0	0	100	
농업/ 농촌자원	농촌관광 산업	빈도	5	6	4	1	1	0	0	0	0	17
	백분율	29.41	35.29	23.53	5.88	5.88	0	0	0	0	100	
전체		빈도	52	34	28	5	12	0	2	1	1	135
		백분율	38.5	25.2	20.7	3.7	8.9	0.0	1.5	0.7	0.7	100

- 신뢰구축 기업생태계는 농산물 및 부산물 재배업과 농식품제조업의 생태계 구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업농촌자원과 농촌관광업 그리고 농산물 재배업/신재생에너지업과 기능성 농산물 생산업 등의 순으로 타나고 있음
- 농어촌 기업생태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뢰기반 구축은 기술지도(63.8%), 자금지원(17.7%), 경영지도(11.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신뢰구축 실태]

(N=130)

농어촌기업 생태계		신뢰기반구축													전체
중간수요	최종수요	기술지도	경영지도	자금지원	융자보증	원자제공	설비대여	영업정보공	자본참여	인력과건	수출지원	정보지원	해외진출지원		
농산물재배업/ 신재생에너지업	가능성농산물 생산업	빈도	7	3	2	1	0	0	0	0	0	0	0	0	13
		백분율	53.85	23.08	15.38	7.69	0	0	0	0	0	0	0	0	100
농산물/부산물 재배업	농식품제조업	빈도	61	11	16	1	2	1	2	0	1	0	0	0	95
		백분율	64.21	11.58	16.84	1.05	2.11	1.05	2.11	0	1.05	0	0	0	100
농축산업	바이오에너지 산업	빈도	5	0	2	0	0	0	0	0	0	0	0	0	7
		백분율	71.43	0	28.57	0	0	0	0	0	0	0	0	0	100
농업·농촌자원	농촌관광업	빈도	10	1	3	0	0	0	1	0	0	0	0	0	15
		백분율	66.67	6.67	20	0	0	0	6.67	0	0	0	0	0	100
전체		빈도	83	15	23	2	2	1	3	0	1	0	0	0	130
		백분율	63.8	11.5	17.7	1.5	1.5	0.8	2.3	0.0	0.8	0.0	0.0	0.0	100

라. 혁신역량 촉진에 관한 인식

- 건강한 협력체계 속에서 혁신역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결과, 농어촌 기업 대부분은 ‘정보,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에 대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참여 기업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생태계내 신뢰향상, 우수한 역량을 지닌 기업의 참여 확대, 다양한 협력기업의 생태계 확장 순으로 나타났음.

[혁신역량 촉진강화 요인별 중요도]

(N= 147)

	평균	표준편차	t값
정보,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	4.39	0.63	84.14***
생태계 다양성 확장	4.19	0.77	65.94***
생태계 내 신뢰 향상	4.38	0.68	77.44***
우수한 역량소유자의 참여기회 확대	4.37	0.75	70.97***

주 : 표본평균은 1% 수준에서 유의함

- 다음으로 생태계 협력기간, 산업화 단계별로 혁신역량강화에 영향을 최대한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산업화단계의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 도입기에서 성숙기로 갈수록 혁신역량 강화효과가 커지다가 성숙기 이후부터는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협력기간에서는 단기간에 혁신역량이 커지다가 중기를 거치면서 감소하다가 중장기이후부터는 역량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혁신역량축진 강화효과]

(N=147)

집단간	집단내	중요도	F값	P값
협력기간	단 기 (1~2년)	0.495	1.65	0.1809
	중 기 (5년이내)	-0.384		
	중장기 (5~10년)	0.505		
	장 기 (10년이상)	0		
산업화단계	도입기	1.716	5.71***	0.0011
	성장기	1.077		
	성숙기	-0.989		
	쇠퇴기	0		

주 : 전체모델은 분산이 108.9, 자유도 9로서 F값이 2.89로 5%수준에서 유의함

#### 마. 상생협력 애로사항 및 제도적 지원

##### 1) 애로사항

- 농어촌 기업생태계 협력과정속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주체간 협력이 부진한 원인과 협력장애원인에 대해 조사하였음
  - 먼저 협력이 부진한 원인은 빠듯한 수익구조로 인한 협력의 여력이 없고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인식에서 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리고, 협력장애 원인은 이익배분, 비용분담, 리스크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정이 없는 것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상을 본 조사에서는 신뢰적 가치에서 오는 갈등과 사업과정 속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신규참여에서 오는 갈등 등 3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음
  - 신뢰적 가치에서 오는 갈등은 연구개발비, 마케팅 비 등 비용분담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리스크분담, 이익배분 순으로 나타났음

- 사업과정에서 오는 갈등은 교류과정에서 사업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항목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쟁관계 속에서의 갈등으로 나타났음
- 신규참여에서 오는 갈등은 제도 및 정책의 미비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협력의 여력이 없음” 가중치 순이었음

[농어촌산업 애로사항 요인분석]

요인 1 : 신뢰적 가치에서 오는 갈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량	고유값	분산(%)
이익배분(특허소유권, 상표소유권, 공동수익등)	3.928	0.814	0.78	2.035	65.954
비용분담(연구개발비, 마케팅비)	3.992	0.798	0.82		68.799
리스크분담(품질보증, 제조물책임, A/S)	4.032	0.717	0.80		68.084

요인 2 : 사업과정에서 오는 갈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량	고유값	분산(%)
사업적거래과정에서 오히려 경쟁관계 갈등을 느꼈음	3.168	1.021	0.73	1.490	62.984
교류과정에서 사업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528	0.955	0.77		67.157

요인 3 : 신규참여에서 오는 갈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량	고유값	분산(%)
빠듯한 수익구조로 인한 협력의 여력이 없음	3.648	0.969	0.60	1.248	67.109
제도 및 정책의 미비	3.504	0.93	0.88		77.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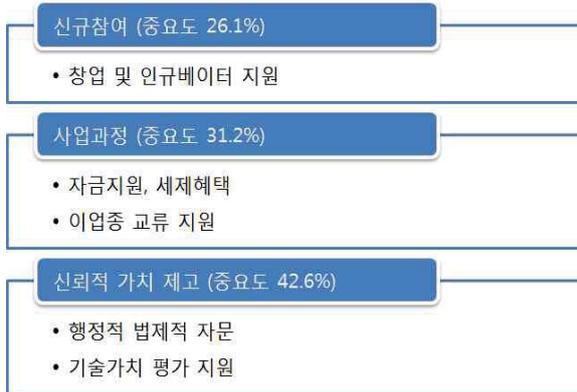
2) 제도적 지원

○ 농어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3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우선순위는 중요도를 기준으로 신뢰적 가치 제고지원(42.6%), 사업과정 활성화 지원(31.2%), 신규참여 지원(26.1%)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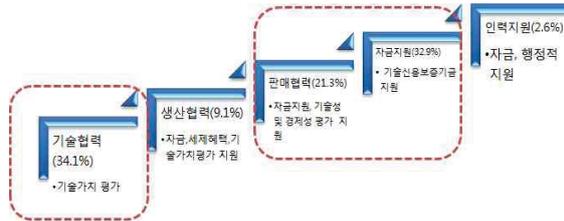
- 각 과정별로 지원내용을 보면 신규참여 지원은 창업 및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과정 활성화 지원은 자금 및 세제혜택, 이업종교류지원 등으로, 신뢰적 가치 제고지원은 계약과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적 법제적 지원, 협력기업의 기술적 가치평가지원 등으로 분석되었음

- 사업협력단계별로 살펴보면, 기술협력, 판매협력, 자금지원의 비중이 높았으며 생산이나 인력지원은 상대적으로 중요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향후 제도적 지원은 기술, 판매, 자금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N=155)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체크포인트]



[사업단계별 주요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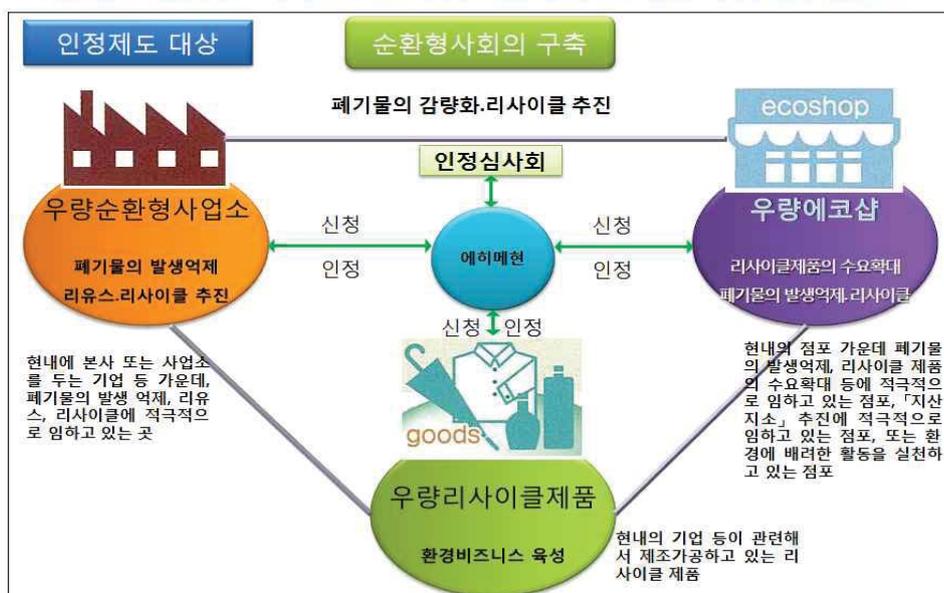
### III. 국내외 사례

#### 1. 일본의 친환경 자원과 상생협력

##### 가. 추진배경 및 현황

- 최근 인구감소, 농림업쇠퇴, 재정압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산업진흥과 지역진흥을 위해 선순환형 사회 구축이 부각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에히메현(愛媛県)에서는 한정된 농촌자원을 활용하고 환경에 부하가 적은 ‘순환형 사회’ 구축을 목표로 현(県)내 기업들이 제조하고 있는 리사이클 제품 또는 폐기물의 리듀스, 리유스, 리사이클이나 지산지소에 대응하는 현(県)내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자원 순환우량모델」로 인증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환경산업의 육성·진흥·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현(県) 사업소에 대해 에코비즈니스 프로그램 「에히메(愛媛) 에코비즈니스페어」를 개최하여 판로확대, 기업간 상호교류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

#### 『에히메현 자원순환 우량모델 인정제도』



[일본 순환형사회 구현 제도적 기반]

### LAS-E의 의미 및 인정 조건

환경자치체회 환경정책연구소가 개발한 시스템 [환경자치체 스탠다드 LAS-E : Local Authority's Standard in Environment)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자치단체]로서 걸 맞는 지 어떤지를 체크하는 기준임

- 환경자치체 회의에서는 환경자치체에 필요한 3가지 조건<제1스태이지~제3스태이지>
- ① 에코액션부문 (환경활동) : 환경문제해결이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책의 시행.
  - ② 에코매니지먼트 부문(환경경영) : 환경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나 정책입안의 시행
  - ③ 에코거버넌스 부문(환경자치) : 시민·사업자와의 파트너쉽으로 사업의 실시나 정책결정의 시행

#### [RE-에히메(에히메현(愛媛県) 자원순환 우량사업자 연락협의회)]

구 분	주 요 내 용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 2005년 2월 4일</li> <li>· 사무소 : 에히메현(愛媛縣) 마츠야마시(松山市)</li> </ul>
목 적	<p>인증사업자의 상호계휴나 자질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협의회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사업을 통해 지역고용을 유지하고 창조하는 활동</li> <li>· 기업으로서 다양한 환경문제의 이해 및 문제해결형 리더 육성 목표</li> <li>· 지역과 함께하는 자주적인 리더활동 목표</li> </ul>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형 사회의 구축이나 환경비즈니스의 진흥, 리사이클 제품의 판로확대 등으로 테마로 연찬회, 강연회,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음</li> <li>· 「에히메(愛媛) 에코비즈니스스페어」에 참가하며 행정기관과의 제휴, 자원순환·그린조달 등 환경기업으로 활동</li> </ul>

## 나. 바이오매스 타운 우치코쵸(内子町)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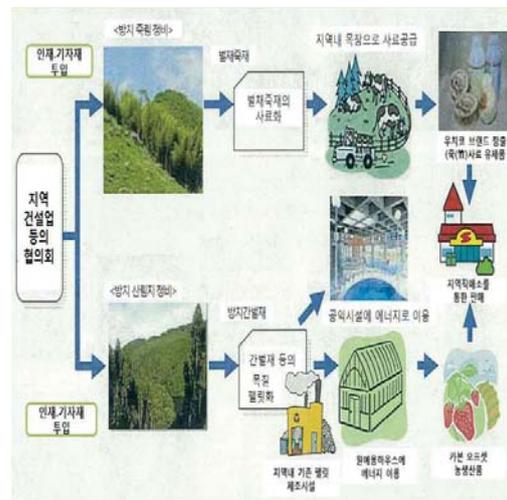
- 우치코쵸(内子町)에서는 산업진흥과 지역진흥을 위해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지구온난화 예방에 공헌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자원이활용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지역의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력과 기자재를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 창출
  - 유향 대나무를 벌채하여 이를 사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역내 목장에 사료로 공급 하므로써 죽 사료 유제품을 개발 판매
  - 방치 산림지를 재정비하면서 나오는 간벌재를 펠릿으로 가공하여 공공시설 에너지로 이용하거나 주변 원예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 종합적인 이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프로젝트



#### \* 이활용 목표

	부존량(t)	사항량(t)	이용률(현재)(%)
폐기물계	16,517	15,018	90.0(63)
미(未)이용계	13,630	1,004	7.7(0)
자원적용	113	1	0.9(0)



### [지자체 바이오매스 이용활 촉진대책 및 농특산물 개발]

- 우치코쵸(内子町)의 바이오매스타운 구상 『숲·밭·마을』의 3개 프로젝트는 ‘삼림환경 개선’, ‘수질 개선’, ‘신산업의 발굴·지역경제의 진흥’, ‘지구온난화방지와 에너지 지역순환’, ‘기술 보급 활성화’, ‘환경교육효과 증진’ 등 다양하고 공익적인 가치 증진
- 이를 통해 ‘농업진흥’과 더불어 ‘농가소득증대’를 이루는 『지역 네트워크 경제』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 하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임.

다. 일본 주요지역 사례

**우치코쵸 원예농가와 나이토 코교(内藤鋼業) 유한회사**

■ 지역도입계기

- 지역의 산림유희자원 활용율을 높이고, 기존보일러업의 사업다각화를 촉진시키고자 (유)나이토 코교(内藤鋼業) 민간회사를 중심으로 우치코쵸(内子町) 지역에서 펠릿보일러사업 전개
- 2005년부터 사업을 준비하여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펠릿 온풍 보일러의 지역 보급에 착수하여 삼나무, 회나무 등의 임업부산물 및 규격외 원목을 가공한 펠릿을 원예농가에 공급

[목재펠릿 제조현장]



- 도입초기에는 농산물 시설재배에 있어서 환경(온도) 변화폭이 크고 습도가 증가하면 병충해 발생 확률이 높아져 품질관리가 어려웠음. 이에 펠릿보일러에 대한 잠재 수요층이 형성되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도입을 관망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었음
- 시설비, 보일러 열량, 지속적인 펠릿 공급 가능성, 보일러 청소 노력 증대 측면에서 보일러 도입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그 후 쇼(町)(면)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장려로 적극적 태도로 바뀌었음

⇒ 2005년 정부의 친환경 장려정책에 힘입어 임산부산물, 품질이 낮은 원목을 1차가공하여 펠릿화하는 바이오메스 촉진정책이 초(町)(면)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므로 이에 따라 펠릿보일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음

\* 농가 대부분은 기름값을 관망하고 있어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음

⇒ 처음 1년 정도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펠릿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해 리스계약 방식을 통해 보일러를 임대해주어 공(工)의 입장에서 농(農)과 연대할 수 있는 사업적 틀을 세우게 됨

\* 펠릿 지역생산 소비체계 - 우치코초(内子町)지역 70%, 다른 지역 30%

⇒ 또한 농가가 재배하는 농특산물의 재배조건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펠릿 공급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줌으로서 농가호응 높임

■ 농어촌 기업생태계 구조

항 목	내 용	비 고
농특산물 개발품목	· 백합, 해바라기, 토마토, 채소	
농업과의 협력방식	· 임업 원목과 부산물을 펠릿으로 제조 후 원예 농가 공급 · 안정적 농산물 재배 및 판매활성화 공동도모	
생태계 진입 및 참여	· 농가, 펠릿제조회사, 보일러회사	
신뢰구축	· 펠리제조이용기술 특허 노하우 공유 · 보일러 리스 계약 · 환경친화적 농특산물 공동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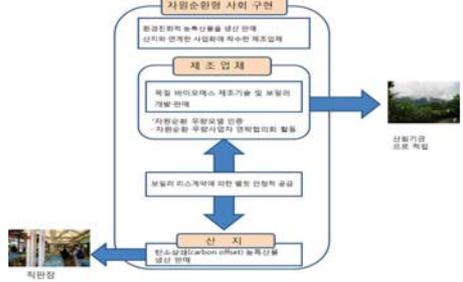
- 최근 유가상승으로 원예농가의 경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마츠야마(松山) 우치코초(内子町) 지역 원예농장(호리모토(堀本) 농장)을 중심으로 펠릿보일러를 리스계약 형태로 임차하고 제조회사로부터 그 원료인 펠릿을 50%로 할인된 가격으로 에너지원의 안정적 공급
  - 이를 통해 경영안정화체계를 갖추고 나아가서 탄소상쇄 농특산물을 주변 파머스 마켓에 판매하고 있음
  
- 펠릿 제조업체는 우치코초(内子町)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채택
  - 신문사 등을 통한 메스콤 홍보
  - 견학, 설명회 등 개최를 통한 바이오메스 홍보
  - 농협을 매개로 한 간접적 홍보

[원예농가의 목재펠릿 이활용 현황]



- 일반 시설하우스 에서 환경관리 가 용이하며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음	- 비닐하우스 700 평 기준 펠릿 사용량 5톤사용 / 1주일 - 펠릿가격 30~40원/kg	- 해바라기, 토마토, 백합, 채소 등 임예작물에 활용
---	---	--------------------------------------

[농어촌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 시사점

- 산지 농가와 목질 바이오메스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새로운 농특산물을 개발 판매하고 펠릿 수익금 중 일부를 산림기금에 적립하여 지속가능한 임업을 추구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원순환형 지역사회 구축
  - 이를 통해 신상품인 탄소상쇄 농특산물을 지역 직판장에 판매하면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펠릿 수익금은 산림기금으로 적립됨에 따라 자립적인 비즈니스 기틀을 마련
  - ‘산림 보전’, ‘지구온난화 예방’, ‘농업소득 증진’이라는 협력적 신뢰적 가치가 도입된 기업 생태계 형태임
  
- 또한 杵(町) 정부에서는 펠릿사업을 「에히메현(愛媛県) 자원순환 우량모델」 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를 그린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형성시켜 준 점이 특징적임

**JA 전농 에히메타이키(愛媛たいき) 농협**

■ 사업시작계기

- 바이오메스 타운 우치코(内子) 건설을 위한 杵(町)정부의 3가지 프로젝트 중 「밭의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도심부의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농가의 축분을 회수하여 퇴비제조사업(돈분 50%, 음식물쓰레기 50%) 추진
  - \* 에코파워 브랜드 퇴비는 환경보전형 농업과 토양개량효과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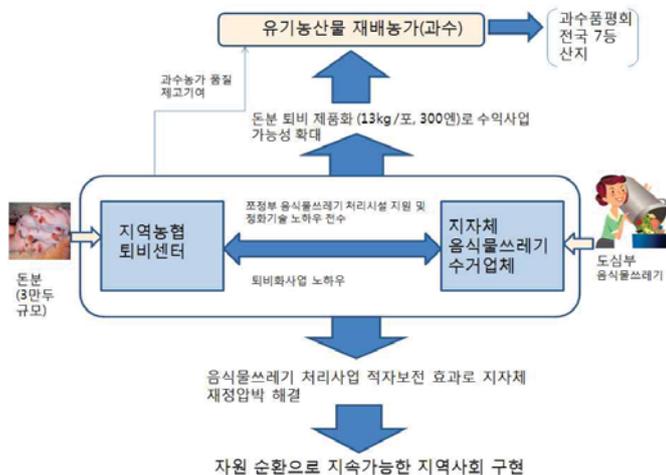
- 농협의 퇴비센터에서는 돈분 만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해오다가 초(町) 정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고민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음

■ 농어촌 기업생태계 구조

항 목	내 용	비 고	
개발품목	돈분 퇴비		
신 퇴 구 축	기술적		퇴비발효기술과 음식물쓰레기 환경정화기술의 노하우 공유
	상업적		기술도입 무상계약과 돈분퇴비 유상공급
	제도적 인증		에히메현(愛媛県) 자원순환우량모델
	프로모션	과수품평회 지원 및 홍보	
생태계 진입 및 참여	과수작목반, 에히메 타이키 농협, 우치코초(内子町) 정부		
농업과의 협력방식	우치코초(内子町) 정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후, 우치코 퇴비센터 에서 환경정화 미생물을 처리하여 돈분, 펠릿회분과 혼합, 교반, 발효 과정을 거쳐 퇴비생산 및 지역 유기농산물 재배 농가 판매		

- 우치코초(内子町)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노하우와 JA 전농 에히메 타이키(愛媛たいき) 농협 퇴비센터의 퇴비화 기술 노하우가 접목되어 돈분퇴비를 생산
- 이를 지역 과수농가에 판매 하므로써 퇴비센터의 운영수익성이 증대되었으며 나아가서 과수 품질 향상으로 전국 7등 산지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었음.
-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 순환 시스템에 포함시킴으로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체계를 형성하였음

[퇴비화사업 네트워크 체계]



■ 시사점

- 지역농협의 공(工)의 역할과 동시 농(農)의 역할을 하며 우치코쵸(内子町) 정부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퇴비제조기술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의 융복합을 촉진시켰음
- 이를 통해 신상품인 고품질 돈분 퇴비를 제조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농협퇴비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기틀 마련과 더불어 시재정(음식물쓰레기처리)에 도움을 주는 공공주도형 비즈니스 생태계」 형성이 특징적임
- 또한 시에서는 퇴비센터의 에코파워 퇴비를 「에히메현(愛媛県) 자원순환 우량모델」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를 그린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형성시켜 준 점이 특징적임

**오베르쥬(Auberge) 우치코(オーベルジュ内子)**

■ 사업시작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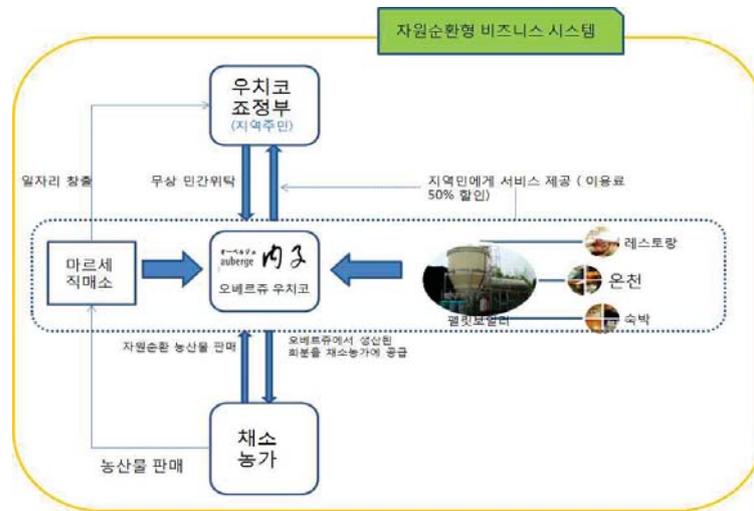
- 오랫동안 쵸(町)정부가 운영해오던 온천사업의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쵸(町)정부에서 민간회사로 시설 위탁이 이루어지게 됨
- 위탁회사는 온천사업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경영 지배구조를 「공공소유 민간 경영」 방식으로 전개하였으며, 비즈니스는 사업다각화와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목표로 삼게 되었음

■ 농어촌 기업생태계 구조

항 목	내 용	비 고	
개발품목	서비스 관광		
신뢰 구축	기술적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기술, 호텔 관광 서비스 기술
	상업적		시설 민간위탁 계약
	제도적 인증		환경지자체 스탠다드 제1&제2 스테이지 합격
	프로모션	우치코쵸(内子町) 농특산물 직매소 판매 지역주민 관광서비스 제공 및 관광객 유치	
생태계 진입 및 참여	오리엔트 호텔 코치 그룹, 우치코쵸(内子町) 정부, 산지농가		
농업과의 협력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치코쵸(内子町) 정부에서 호텔, 온천, 고급음식점, 직매소 등을 「오베르쥬우치코(オーベルジュ内子)」을 통해 위탁운영</li> <li>- 펠릿 보일러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공급하므로써 경영비가 낮아져 이를 다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공공소유 민간경영」 형태를 가지고 있음</li> <li>- 펠릿 보일러에서 남은 재를 모아 주변 원예농가에 주고 이를 활용하여 고품질 농특산물을 마르세(マルシェ) 직판장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li> </ul>		

- 사업다각화는 숙박업, 음식업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과 전기에너지를 수영장, 야구장, 헬스장, 호텔, 식당 등으로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
- 이에 따라 고령 주민에게 온천이용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지역산 친환경 농특산물을 호텔, 식당 등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6차산업화 생태계 체계]



■ 시사점

- 공공소유 민간경영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오베르쥬 우치코(オーベルジュ内子) 사(社)는 지역의 산림유희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자사(自社)의 온천, 고급음식점, 호텔 등에 공급하고 이를 활용하므로써 ‘경영 흑자’와 ‘지역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절감’, ‘농가소득 증대’라는 4종류의 협력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고 있음.
  - 특히 목질 바이오메스이용 에너지 생산기술과 호텔 서비스업에 대한 노하우가 결합된 ‘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 사례임
- 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신상품(다이닝, 숙박, 빠, 온천 등)을 개발하여 우치코쥬(内子町)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베르쥬(オーベルジュ)의 상품적 가치를 올리고 자원순환형태로 재배된 고품질 농특산물을 직매소에서 관광객에게 홍보, 판매하는 기틀 마련
  - 더불어 주민 만족도 증대 및 시재정(공공소유 공공경영에 따른 재정압박)에 도움을 주는 「6차산업화 생태계」 형성이 특징적임

## 2. 네덜란드의 지역혁신

### 가. 농업농촌정책

#### ■ 네덜란드의 정책 핵심 3대 목표.

- 네덜란드는 작은 국가이지만 세계 제2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가축과 번식축진 물질, 정액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식품생산에서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음
- 소규모나 대규모 계획은 공동목표를 두고 사람과 동물 그리고 환경을 존중하는 생산과 소비체계 구축에 있음.

#### [3대 정책]

- 생산자의 지속 가능한 혁신 개발 촉진
  - 농산물 공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상당량의 지속가능생산 고기와 생선이 소매점과 단체급식부문에서 2년동안 15% 판매 증가를 이루었음.
  - 향후 과제는 완전한 생산가치 사슬체계를 만드는 데 있으며, 이는 원료부터 최종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완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농산물 생산과 가공에서 혁신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지속가능한 생산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조치를 내리고 있음
-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식품의 구매 촉진 (소비자)
  - 소비자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산물에 더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력을 축적시키고 있음
  - 지속가능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확대가 예상됨
  - 지속가능한 식품 정보(인증, 건강마크와 로고)로 소비패턴의 전환
- 국제적 의제의 합의 촉진
  - 우수한 국제협력은 지속가능한 식품생산에 영향을 주며, 세계 특히 개도국의 생산성향상에 기여

#### ■ 네덜란드 정부의 협력촉진 정책

- 협력은 식품 생산을 포함한 소비자, 산업, 과학과 정치 등 모든 부분을 포함
  - 협력플랫폼은 공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과 중요한 문제해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지속가능한 생산물 대규모 공급시스템 구축 및 유통 촉진

### ■ 네덜란드 농업현황

- 네덜란드 경종농업과 원예산업은 생산성 증가, 규모화와 집적화로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약 40% 농가가 감소하였음
  - 이는 경직된 시장경쟁구조, 에너지비용의 가파른 증가, 원예농가 구조조정 등이 원인
- 2008년 75,000 사업체가 농업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이중 낙농이 25%, 소, 양, 염소 등 방목 가축이 25%, 곡류, 사탕무, 감자 등 경영체가 14.6%, 원예비중이 17.3%, 돼지와 닭 경영체가 8.6% 등으로 구성
- 농경지
  - 총면적은 4.15백만ha이며 이중 농경지가 50%이며 농경지 중에서 원예작물 농경지가 56%, 목초지가 42%, 곡물재배지가 2%임
- 환경
  - 농경지에서 질소성분이 ha당 1/3 수준, 인산은 1/2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암모니아 배출량은 거의 1/2수준으로 감소
- 생산액
  - 네덜란드 농업과 원예생산액은 약 240억 유로이며 이는 GDP의 1.6% 수준으로, 유럽 평균 1.2% 보다 높음.
  - 원예작물과 사료작물은 114억 유로이며 이중 화훼와 시설농업이 50%임
  - 축산은 97억 유로로, 이중에서 낙농이 43%임
  - 전체 농업생산액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1% 씩 증가하고 있음
- 생산성
  - 농업과 원예작물 농가는 고용비 증가와 규모화 추세에 놓여 있음. 작물 생산량은 10년 동안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계 밀의 ha당 생산량은 1975년 5,100kg에서 2008년 9,000kg으로 증가하였음
  - 사탕무는 44톤에서 72톤으로, 감자는 33톤에서 46톤으로, 낙농부문의 두당 생산량은 4,625kg에서 7,879kg으로 두배이상 증가하였음
- 유기농 : 유기농산물은 총 재배면적이 5,000ha 이상이며 1,400개소의 사업체가 인증을 받았음, 평균 유기농가수는 관행농가보다 많으며, 유기농 이용 농지의 2/3가 축산용 목초지이며, 나머지 과수, 채소, 감자가 10%비중을 차지, 곡류도 10%를 차지함
  - 네덜란드 유기농가는 전체 농경지의 2.6%를 이용

- 이탈리아 유기농가의 농지는 1.2백만 ha이며 전체농경지의 9%를 이용
- 스페인은 1백만 ha이며, 전체 농경지의 3.9%, 그다음으로 독일은 0.9백만 ha, 5.1%임
- 네덜란드에서는 유기농 과일, 채소, 낙농, 치즈, 계란을 생산하며, 50%이상은 독일, 영국, 벨기에, 프랑스로 수출하고 있음.

○ 지역생산

- 지리적 표시 농산물 시장규모는 120 백만 유로에서 180백만 유로로 추정되며 매년 증가 추세임
- 지역농산물은 지리적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로 EU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 740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가 네덜란드 산임

■ 네덜란드 식품, 음료, 담배산업 육성

○ 기업, 인력

- 식품, 음료, 담배산업에는 약 150,000명의 인력과 4500개 사업체가 있으며 , 2006년 순 매출액이 거의 570억 유로로 추산되며, 인수 및 합병에 의해 최근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음.
- 소매업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및 유럽 전체적으로 구매력을 주도하고 있음
- 식품, 음료, 담배산업 기업체는 국제화를 지향하는 다국적 기업이며, 판매부문 사업체 75%이상은 해외 특히 유럽회원국으로 진출하였음
- 해외에서의 투자는 2007년에 총316억 유로로, 이중 50%가 벨기에와 영국에서 투자하고 있음
- 외국계 기업이 455억 유로이상을 네덜란드 기업에 투자
- 미국은 가장 큰 투자국이며 전체 투자액의 50%이상을 차지함
- 다음으로 프랑스로 약 140억 유로를 네덜란드 식품기업에 투자

○ 네덜란드 식품, 음료, 담배산업에서 다국적 투자

- 네덜란드는 다국적 국가이며, 제품측면 유럽국가중에서 최상위 지위를 가지고 있음
- 8개의 식품기업은 2008년에 거의 850억유로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음

○ Unileve와 스위스 기업 Nestle은 글로벌 식품기업이며 유니레버는 2008년 글로벌 매출액이 약 400억유로이며 이중 식품과 음료가 50%이상 차지

- 수많은 국가에 약 174,000명의 고용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서유럽에 30,000명, 북미와 남미에 42,000명,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100,000명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heineken은 2008년 현재 126백만 천리터의 맥주생산량을 기록했으며 국제시장을 보유하며 네덜란드 맥주시장의 50%를 차지함
- VION식품그룹은 식품사업이 주사업이며 식품사업은 냉장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육류 편이식품등이 있음. 쇠고기 유럽시장의 5%, 냉장돼지고기 유럽시장의 9%를 차지함
- Royal FrieslandCampina기업은 21,000명의 고용인력과 95억 유로 매출액(2008), 이기업의 주투자자는 스위스 Nestle 社 와 프랑스 Danone 社임. 이기업은 낙농협동조합의 자회사이며, 25개국에서 2008년 현재 우유 11.5백만kg을 가공 생산판매하고 있음
- Nutreco는 세계 제3위 동물사료회사로 30개국에 9000명 고용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80개국에서 판매하고 있음
- CSM은 제과제품, 젖산과 젖산 파생상품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 1위, 미국 2위 위치를 차지함

■ 소매업과 서비스산업

- 2007년 현재 네덜란드 소비자는 365억 유로를 소비했으며 이는 식품, 음료, 담배분야에서 소득의 14%를 소비하고 있음. 이 소비액중 4/5가 식품분야이고, 술과 담배 소비 매출액의 2/3가량이 슈퍼마켓에서 소비되고 있음.

<식품산업에서의 지배력 변화>

기간	농업인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1900년 이전	지배적	적음	약간의 무역에서 중요	매우 적다
1900~1950	감소	지배적	많은 무역에서 중요	적다
1950~1970	소수	지배적	지배적	새롭게 부각되다
1980~2000	매우 적다	감소중	빠르게 감소	지배적

-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소규모 체인에 속함. 2008년 현재 Albert Heijn은 소규모체인중에서 가장 크며 750개 점포에서 90억 유로의 매출액을 올렸음
- 시장점유는 약 1/3정도이며, 세계 3위의 슈퍼마켓 그룹인 Ahold 그룹은 Albert Heijn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 도매업체 Schuitema는 C1000 슈퍼마켓의 소유이며, 13%의 시장점유를 보이고 있음
- Food Away From Home(FAFH)는 2007년 현재 네덜란드 소비자를 위해 140억유로를 지출하고 있음
- 호텔, 레스토랑, 스낵바, 패스트푸드식당, 카페, 카페테리아 그리고 케터링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은 42,000개사업체에 340,000명이 종사함. 사업체의 1/4이 레스토랑, 1/4이 카페임
- 유기농 식품 : 2008년 현재 네덜란드 소비자는 유기농식품에 583백만 유로를 소비하고 있으며 전체 식품, 음료, 담배소비의 2%를 차지함. 이 유기농식품을 통해 슈퍼마켓이 257백만 유로, 스페셜 샵이 235백만 유로, 케터링이 461백만 유로를 매출액을 올림

■ 연구와 교육

- 농업부문은 네덜란드 경제와 문화에서 필수적임. 최근 지식 하부구조가 발전하고 있으며, 지식 기반의 핵심은 와게닝대학과 그 연구소임. 이연구소는 기초와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나. 푸드밸리 상생협력 혁신모델

■ 설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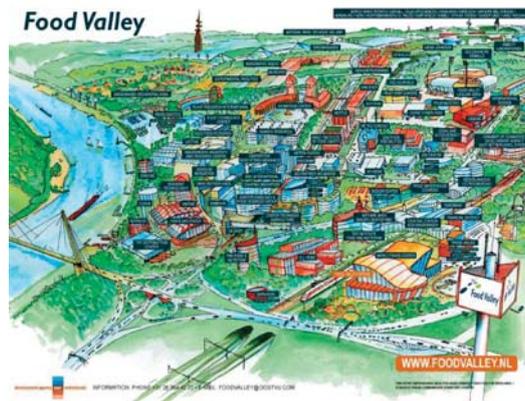
- 최근 유럽은 비만과 만성적 질환에 대한 예방과 개인주의 가속화로 외식(out of home) 산업의 비중과 소비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Bio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배경으로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능성 식품, 유기농, 공정무역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식품세계시장은 생계형 농업에서 대형시장 → 간편식 시장 → 품질과 위생중시 시장 → 식품 기술 고도화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상품은 탄수화물 식품에서 유제품/신선육/생선/신선과일 주스, 음료 → 스낵 또는 조리식품 → 간편식 → 비만억제식품/기능성식품/유기농 식품으로 진화하고 있음
  - 국가 유형별로 보면, 아프리카는 생계형 시장에서 탄수화물식품이, 인도/중국/중남미는 대형유통시장에서 유제품·신선육·생선·신선과일주스·음료가, 동유럽은 간편식시장에서 조리식품·스낵이, 북미·일본·서유럽·호주에서는 비만억제식품·기능성식품·유기농 식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시장환경에서 네덜란드 식품기업은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시장론칭시간 단축, CO2 중립과 음식물쓰레기절감, 비용절감, 균형잡힌 지식사회의 일원으로 참여, 개방형 혁신센터 설치를 통해 사업화를 전개하게 되었음

### ■ 푸드벨리 설립계기

- 역사적으로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지만 무역은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를 통해 세계의 부가가치 집적
- 네덜란드의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 도입
  - 서네덜란드 바이오, 원예 / 동네덜란드 식품, 건강
- 이와같은 역사적 자연환경 배경아래에서 네덜란드는 중개무역과 가공무역이 활성화됨
  - 화훼 수출단지 및 경매장을 통해 IT 및 유통 장악 (선물거래 일반화)
  - 유가공품 및 화훼수출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2001년 네덜란드 동남부 지역개발청을 중심으로 푸드벨리 사업계획수립 → 2001년 관산학연 연계체계인 푸드벨리 사무국 설립 → 2010년이후 푸드벨리 클러스터체계 확립 및 성공



### ■ 푸드벨리 클러스터 구조

- Oost Nv (동네덜란드 지역개발청)
  - 자금, 운영컨설팅을 담당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50 : 50으로 출연하여 운영
  - 2012년~2014년 3년간 1/3씩 정부지원금 회수
  - 2015년부터 50% 지방정부 출연금+ 50% 매출 수익금 자체 출연, 민영화
  - \* Gradually Step Out 방식
- WUR(와게닝대학 연구원)
  - 기초, 응용 과학기술연구 및 실용화
  - project 베이스 단위로 기업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연구비, 인력)

- 미래의 레스토랑 (소비자행동관찰), 농식품기술진보센터
- PTC + 교육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 네덜란드 협동조합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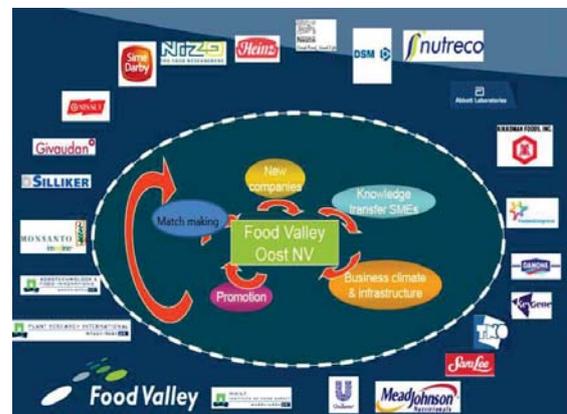
○ 재단(Foundation)

- 해외홍보, 해외집적투자 유치, 국내외 Agro Bio 클러스터와 교류협력



■ 푸드벨리 혁신 중간지원활동(Oost Nv)

- 혁신 프로젝트의 탐색과 개발
- 혁신 연계체를 이용한 지식 이전
- 새로운 식품 비즈니스의 도입 촉진
- 비즈니스와 지식조직 간 중개알선
- 해외직접투자 탐색
- 푸드벨리 컨퍼런스
- 푸드벨리 협회
- 국제 브랜드화
- 푸드벨리와 기업혁신 활동지원센터의 연계



Syntens 혁신센터

- Syntens 혁신센터 설립 : Syntens은 중소기업의 혁신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1월 1일 설립, 비영리 재단.
- 사업착수 지원과 식품제품 컨셉의 혁신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함  
기업의 사업솔루션과 전문노하우 제공
- 성공적인 혁신을 촉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여를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 능력을 강화

■ 푸드벨리의 대내외 경쟁력

○ 3억 5천만명의 유럽시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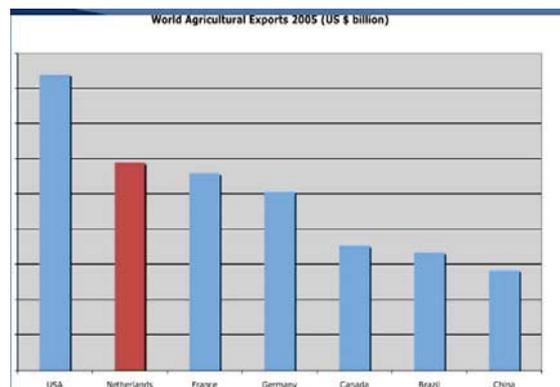
- 유럽 각국의 GDP와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여 Euro Delta, Economic Banana, Latin Arch로 하는 수요분석 틀을 가지고 있음



○ 우수한 R/D 고급인력과 기업 확보 및 무역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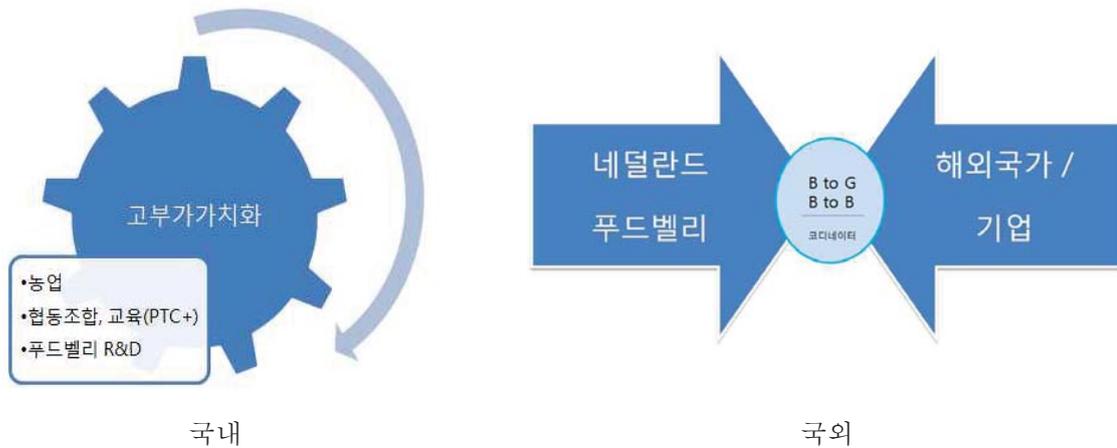
- 15,000명의 R/D인력, 70개의 R/D기업연구소, 1400개의 식품기업, 20개의 연구기관 - 비즈니스클럽보유, 75만명의 푸드벨리 소사이티, 연구협회, 연구기관 집적(식품영양, 녹색생명공학, 유용물질연구)

- 세계2위의 농식품 수출국(연간 230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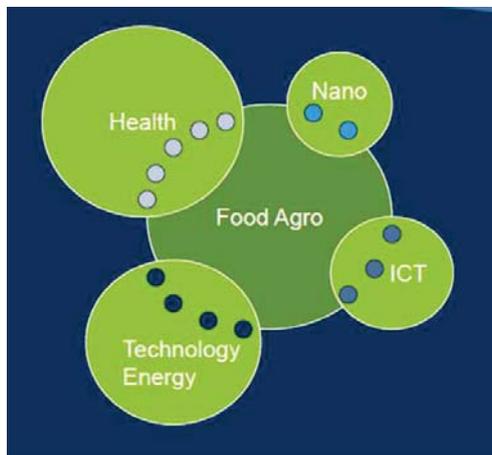


■ 비즈니스모델 : B TO G(B) 시스템

- 푸드벨리 R&D는 협동조합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농업기술 이전사업화 전개
- 와게닝 대학과 기업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 푸드벨리와 해외 국가(기업)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기술이전사업화로 선진기술 수출
  - 해외국가와의 R&D협력 MOU사례 : 한국(농촌진흥청, 서울대,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등



- 푸드벨리를 거점으로 한 기술사업화 세금혜택 제공
  - 로얄티 세금면제, 네덜란드 협동조합 협력시 세금면제, 자본세면제, 혁신활동 5% 실효세율, 외국인 고용시 30% 세금감면
- 국제우수인력을 식품기업에 공급
- 푸드벨리 R&D 혁신 : 학문영역 융복합화



■ 푸드벨리의 경제적 효과

○ 정량적 효과

- 년 매출액은 640억불이며 이중 80%가 로얄티이며, 고용유발효과는 700,000명으로 네덜란드 인구 17백만명 대비 4.1%로 푸드벨리의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큼
- 경상이익율 70~80%가 신재생에너지, 작물육종, 바이오산업, 식품 등에서 창출

○ 정성적 효과 : 유럽시장에서의 푸드벨리의 국제적 위상 상승

- 푸드벨리는 미국 나파벨리,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손, 이탈리아 에밀리로마니아와 함께 4대 식품클러스터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음
- 와게닝대학은 세계 3대 대학으로 급부상

다. 연구개발 및 정책혁신 지원

■ 네덜란드 와게닝대학 LEI연구소는 소비자행동 및 식품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경제농업 혁신부 정책 및 R&D개발에 전수하기 위하여 시장과 소비자, 관련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푸드모니터) 실시 및 신정책 / 신R&D에 기여

-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과 행동을 관측
- 소비자와 기업의 니즈 분석
- 전체 푸드 시스템의 방향 제시

■ 푸드모니터 주요내용

- 소비자행동 : 과일, 간편식, 공정무역, 유기농
-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 : 인식, 습관, 사회경제적 지위, 신체적 사회적 환경
- 소매, 외식에 미치는 영향 조사 (200명) : 지속가능성(에너지, 투명성, 건강 등)

■ 푸드 모니터 활용

- 아젠더로서 지속가능성은 소비자 기대를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지게 함
- 사회적 물리적 환경은 지속가능성 구매를 쉽고 편한 구매가 되도록 촉진.
-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인식하고 있음
- 기업은 지속가능한 생산물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 NGO는 기업의 평판 위축과 더불어 기업의 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정부는 식품공급 체인에서 혁신을 촉진시켜야 함

## 라. 네덜란드 푸드벨리 혁신모델 시사점

### ■ 네덜란드 농업농촌정책의 연계점

-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에서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로 부처명을 바꾼 배경에 대한 설명
  - 새 정부출범에 따른 정치적 결정. 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관련부처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예산줄이기 시도
  - 그러나, 통합되었다고 해서 농업농촌분야의 중요성이 적어졌다거나 일이 줄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님. 기존 농업농촌에 식품, 건강 등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그리고, 농산물 무역 파트는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ign Trade에서 담당
  - innovation(혁신)이라는 단어가 부처명에 들어간 배경에 대해서는 네덜란드가 세계최고의 농업국가중에 하나지만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시장의 경쟁이 심화됨. 이에 따라 네덜란드도 중국, 미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표현
  
- 농가협력에 관한 사항
  -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국토도 좁고, 농지도 좁은 편임. 따라서 국내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작은 농가들이 뭉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게 됨
  - 농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정부차원의 정책드라이브는 없고, 농민들이 먼저 뭉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요구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 네덜란드의 협력구조는 『농민-연구소-정부』 라는 삼각편대 시스템임. 이중 정부의 역할은 R&D 지원과 무역 등에 대한 것에 집중. 농민들과 연구소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연구소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농가가 직접 활용할 수 없을 경우, Extension(기술보급원)을 통해 기술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 따라서 Extension(기술보급원)은 컨설팅 위주가 주이며, 컨설팅비는 농가가 직접 지불함. 따라서 Extension(기술보급원)의 전문가들은 농가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
  
- Extension의 기능
  - 예전에는 익스텐션 기능이 정부에 속해 있었음. 지금은 완전히 민영화되었음
  - 정부로부터 받던 출연금과 용역자금을 점차적으로 줄여 최근에 완전 민영화를 이루었음

- 민영화를 통해 달라진 점
  - \* 운영자금을 컨설팅을 통해 조달
  - \* 정부와 농가간의 중간자 역할
  - \* 최신 기술습득과 정보에 대해 농가들 보다 앞서야 살아남을 수 있음
  - \* 현장 중심의 컨설팅 가능해 짐.

농가들이 직접 특정 기술이나 정보에 대해 요구하기 때문에 현장중심형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따라서 컨설턴트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함.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연구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원천기술에 대한 내용과 이해가 빨라지고,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

○ 정부 보조보다 장기 저리 융자 선호

-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정부보조사업보다 장기 저리 융자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됨
-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이 당시 RACFFEBSEN을 설립하였음. 이것은 농가가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고자 할 때 정부가 보증을 서 주는 시스템
- 보증시 담보능력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도전성을 보고 정부는 보증을 서게 되고, 은행은 돈을 대출해 줌. 이러한 시스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금 보다는 사업자금을 스스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됨

○ 한국 농업농촌에 대한 조언

-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려하지 말라. 농가는 또한 정부에 너무 기대지 말라.
- 정부가 너무 앞서게 되면 농가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음
- 정부정책은 많은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그 결실을 볼 수 있음. 너무 성급한 판단은 금물
- 네덜란드 농업은 거창한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사실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혁신을 이루었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시스템이 도입되고, 정부의 정책도 만들어지게 되었음
- 협력이라는 것은 축구경기와 같음. 모두 선수가 골을 넣고 싶지만, 포지션에 따라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됨. 모두 골을 넣으려 하면 조직이 무너지고, 갈등만 남게 됨. 이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이 협력이 잘 되기 위해 계약과 규약 등의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 ■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시스템 성공요인

### ○ 창의적 혁신체계 구축

- 일단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하며 R&D 기반을 충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원천기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가치판단의 기준을 상업적 가치에 두고, 시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상업적 가치가 가장 중요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검토
- 정부가 중심이 되는 R/D보다 상업적 이득을 목표로 하는 민간부문을 성장동력화하여 창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촉진. 정부는 규제완화에 주력
- 연구는 조력자이고 중심은 시장이며, 네트워크나 워크샵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 갈등 관계 관리

- 푸드밸리만이 가지고 있는 갈등관리 논의구조는 별도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구조적인 틀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틀 속에서 논의하며 해소함
- 공식적인 논의구조 속에서는 같은 목표로 향하고 있음에 대한 공유의식, 이익을 함께 가지자고 하는 공유의식 등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성을 중요시 함

### ○ 푸드밸리의 안정적인 정착 요인

- 와게닝겐대학 연구기반 존재
- 지역과 긴밀한 관계 설정을 통한 혁신 창출
- 작은 성공케이스를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 냈음
- 이 지역 출신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활동하고 있어, 이들과 푸드밸리를 연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
-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가치관 공유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시스템
- 대학-민간연구소-재단-지역개발청 등의 건설한 협력체계

### 3.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국내사례

## 함양 연잎밥 및 가공사업

#### ■ 사업추진계기

- 전통적으로 함양지역은 벼농사를 위주로 하는 농업지역으로서 신소득작목 개발 수요가 높았음  
[함양군 경작면적]

연별	면적합계(ha)	논	밭
2006	10,307	6,857	3,450
2007	10,269	6,832	3,437
2008	10,222	6,837	3,385
2009	10,241	6,849	3,392
2010	10,241	6,849	3,392

자료 : 함양군 통계연보, 각년도

- 이에 따라 함양 연재배가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연재배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2006년부터 계약재배를 도입하였음
  - 이 과정 속에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잎과 연꽃으로 특화시켰으며 노동력과 농자재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벼 대체 작목 개발 효과를 얻게 되었음
  - \* 쌀소득보다 높은 친환경 연 재배 확대 : 함양 쌀 소득 50만원/10a, 연잎 소득 115~120만원/10a
  - 연잎 장당 구매가격은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 조정
    - \* 2006년에 100원이었으나 2011년 작목반에서 구매가격을 150원으로 인상요구. 함양군의 중재조정에 의해 130원으로 조정
  - 연잎 저장기술 확보로 시장변동에 대응 : 생잎 저장기술, 대형 저장고 확충
- 사업초기에는 연잎 및 농특산물 가공산업 확대를 위해 함양군 식품제조업체 130개 업체중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23개 업체를 중심으로 가공사업협회를 조직화하였으며 현재는 지산 식품을 중심으로 20개업체가 네트워크를 형성
  - 연잎밥 상품화 및 식재료 판로 개척

- ‘숨쉬는 연잎밥’ 상품개발 : 연잎 꼭지 이용 신선도 유지기술개발
- 연잎밥 향토음식 외식사업 전개 및 연잎차, 연잎가루 등 사업다각화

○ 특히 지산식품을 리딩기업화하여 협회 네트워크 구축 및 분업화 생산체계 구축

- 지산식품은 고구마 재배농가 80호, 등글레 재배농가 40호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자색 고구마 분말을 제조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업화체계를 갖추 : 분말생산, 분말을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판매



[연잎 산업화 과정]



[농산물 가공사업]

■ 농어촌 기업생태계 구조

항 목	내 용	비 고	
개발품목	연잎밥 및 가공사업	 	
혁신체계	함양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중심으로 가공사업 R/D, 창업보육, 파일럿플랜트에 의한 사업화전개		
신뢰구축	기술적	가공 및 유통 노하우 공유	
	상업적	연잎 및 농산물 계약재배, 가공업체의 분업생산,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식재료 공급계약	
	제도적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브랜드 조례, 창업보육지원, 식품가공협회 정책자금 지원	
프로모션	연잎밥 전문식당 옥연가 외식사업 확대, 프랜차이즈 업체 연잎밥 판매, 박람회 공동참가 및 홍보		
생태계 진입 및 참여	작목반, 식품가공협회,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가공업체, 외식사업체, 경상대		
농업과의 협력방식	작목반과 20개 식품가공협회의 계약재배를 함양군이 중간지원하며 가공사업과 외식사업 전개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경상대학교, 그리고 함양식품가공협회, 연잎밥 전문식당 등이 상호학습과정을 거쳐 신기술, 신지식 창출

- 산업생태계 속에서 계약재배와 분업생산 체계를 갖추어 상업적 신뢰관계를 구축하였으며, 함양군은 정책자금 지원, 창업보육지원,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 브랜드 무상리스를 통해 신뢰관계를 촉진시키고 있음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브랜드]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함양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물레방아골 함양」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물레방아골 함양」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및 정물의 인위적 개입을 받은 농산물의 가공·제조품(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표"라 함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그 표시를 위하여 함양군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물레방아골 함양」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용권"이라 함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이와 같은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 각종 박람회 공동참가,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사업영역 확장

 <p>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p>	 <p>외식 및 대기업과의 협약</p>
--	---

[함양군 식품가공사업협회]

가공업체	주요 생산품
영농조합법인 고운	복분자주, 연잎막걸리 등
농업회사법인 (주)두레마을	산머루즙파우치, 산머루와인 등
농업회사법인(주)맑은음식이야기	연냉면, 자색고구마냉면, 흑돼지 등
명가원	술송주, 복분자술 등
영농조합법인 슬로라이프참죽	참죽 자반, 참죽 간장짜아찌, 된장 등
(주)인삼죽염촌	인삼자죽염, 인삼사리장 등
지리산솔피농원	솔피 된장, 쌈장, 등
(주)지산식품	자색고구마즙, 자색고구마쨈, 동굴레차 등
함양영농조합법인 천령식품	여주 고야플러스, 여주랑 양과즙 등
철식품	죽염, 마늘환, 유허오리 엑기스등
코리아신토불이	흑마늘가시오가피진액, 흑마늘 환 등
농업회사법인(주)하얀햇살	무농약떡국, 자연삼색떡국, 삼색조랭이 등
지리산홍화인	홍화씨환, 호두기름, 유근피환 등
함양농협가공사업소	팥, 쌀, 엿기름, 누에가루, 환, 인삼 등
영농조합법인함양상림 연	연잎밥, 연근차, 연혼합차 연근가루 등
영농조합법인함양지리산고로쇠	고로쇠, 고로쇠환, 칩즙 등
함양지리산다원	국화차, 매화차, 목련차, 구절초차 등
햇빛고운마을	오미자차, 오미자 식초, 오자야 등
지리산선농원	청국장환, 생청국장, 옛날간장 등
용추골된장집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

■ 생태계 중간지원

- 함양군에서는 연잎산업 확대를 위해 자원식품팁을 설치하여 지원, 육성, 마케팅, 판매 등 중간지원 적극적 추진
  - 함양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운영
  - 가공사업 R/D
  - 창업보육
  - 파일럿플랜트 설치 및 사업화 전개
  - 농산물 계약재배 및 저장기술 지원
  
- 또한 함양군 식품 가공사업협회 생산지원,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 판로개척 지원
  - 세분일레븐, 한국야쿠르트, 프렌차이즈 박람회 등 참여 지원
  - 농산물 분말 생산 및 완제품 제품화로 분업화
  - 함양군내 농산물을 100%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족분은 외지에서 10~15% 활용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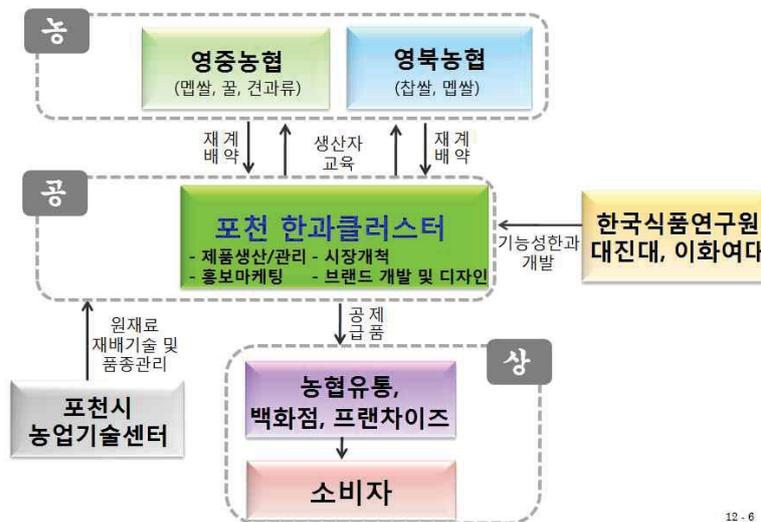
- 함양 농촌산업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함양을 중심으로 무안과 상주를 벨트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같은 농산업 광역클러스터 형태 도입 검토
  - 무안 공산품, 상주 생활용품, 함양 식품으로 각각 특화시켜 벨트화 시킴
- 함양군 지리적 표시 등록 농산물과 연계시켜 연잎 가공사업 및 상품개발 확대
  - 함양양파, 함양꽃감, 함양산양삼 등
- 식품가공협회의 기술적 경영적 노하우의 지역사회 공헌도 강화
  - 지역 농산가공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술적 경영적 노하우 전수
- 중장기적으로는 ‘물레방아골 함양’ 농특산물 사업단 구성 및 생태계 촉진필요
  - 사업단을 중심으로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각 부문이 가치혁신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 포천 한과클러스터

### ■ 사업추진계기

- 전통적으로 포천지역에서는 전통문화, 생활문화, 식문화, 놀이문화 등 향토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포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업인 교육사업 전개
- 이러한 풍부한 자원과 입지조건으로 신궁전통한과가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이전되면서 포천전통한과에 대한 인식 전환
- 한과명인의 노력으로 한과문화박물관이 설립되면서 한과에 대한 홍보 교육사업이 활발해져 한과창업과 시장이 확대됨
- 이와 같은 환경과 배경 속에서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한과 관광산업의 효과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과안테나숍과 프렌차이즈사업 전개

[포천 한과 클러스터의 생태계]



12 - 6

### ■ 농어촌 기업생태계 구조

- 한식세계화 및 전통문화 계승을 계기로 한과산업 발전을 위한 포천 한과명인 육성
- 한과문화박물관 설립을 계기로 한과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문화를 확산시켜 한과시장 확대에 기여
- 한과산업의 확장을 위하여 전문기능인 대상 한과교육 및 창업지원 추진
- 지역농업 발전과 원료곡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농협과의 계약재배 도입

○ 한과 고급화 차별화 전략으로 ‘김규훈 한과명인’ 브랜드 개발 및 기능성 한과 개발

항 목	내 용	비 고	
개발품목	전통한과 및 기능성 한과		
혁신체계	한과명장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혁신기반 구축		
신 뢰 구 축	기술적		전통한과 제조기술 및 경영 노하우 공유
	상업적		영북농협 찹쌀 계약재배, 한과창업지원
생태계 진입 및 참여	제도적 인증	명장제도	
	프로모션	한과명인 브랜드 개발 및 홍보, 한과관광	
농업과의 협력방식	영중농협, 영북농협, 신궁전통한과, 신규 한과창업자, 한과문화박물관 2007년부터 찹쌀, 멥쌀, 꿀을 중심으로 작목반과 신궁한과의 계약재배를 영북농협과 영중농협이 중간지원하며 전통한과 생산 및 판매 추진		

■ 생태계 중간지원

- 한과산업 발전을 위해 2005년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단이 발족됨에 따라 지역에서는 한과 제조업체, 농협, 작목반 등 기업생태계 여건이 마련됨
- 한과클러스터 사업단은 제조업체와 농협과의 계약재배에 있어서 중간조정 역할이 크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찹쌀 가격의 불안정에서 오는 농협과 한과제조업체 간 계약재배 가격협상과 계약물량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 계약재배단가의 하향화로 계약물량 점진적 감소 : ‘07년 80톤, 22만원 → ‘11년 32톤, 18만 5천원 /80kg
  - 일반 쌀 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찹쌀 시장가격 형성으로 농업인 이탈
  - 찹쌀재배의 불안정으로 목표수량 확보의 어려움

계약재배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고 농가소득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중간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 한과클러스터 사업단은 한과명장의 노하우를 창업자들에게 전수시키며 한과산업을 확대시키며 신뢰적 자본을 축적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농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과제조업체와 농업인 간 기술적 경영적 노하우 공유에 관한 인식이 낮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향후 한과명장의 노하우가 농업인에게도 전수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 역할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한과시장이 확대되고 시장 내 경쟁도 치열해짐에 따라 원가경쟁에 대한 압력이 커져 클러스터 사업단과 지자체는 상품마케팅 역량을 강화시키는 중간지원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음
  - 한과제조업체 매출액 감소 : 2004년 매출액 96억원 → 2011년 46억원(△50억원)

##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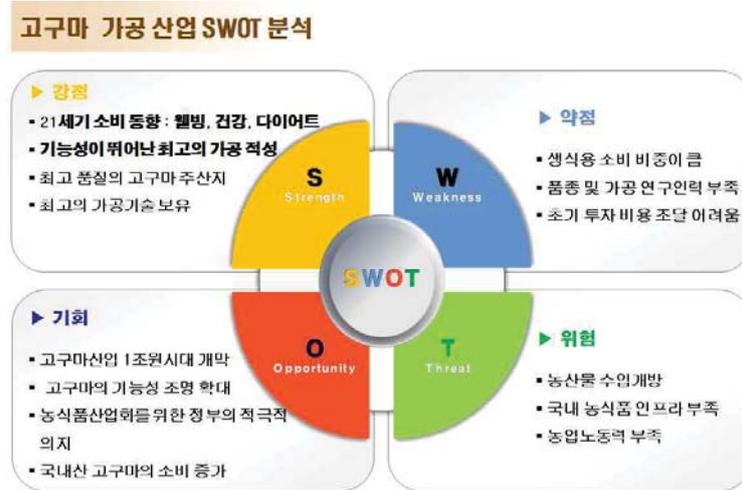
- 농업인, 농협, 한과제조업체가 공동 투자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계약재배 참여를 안정적으로 유도하며, 나아가서 한과마케팅에서 발생하는 출자이익 배당제 도입이 필요함
- 참쌀 연합사업단을 조직화하고 연합사업단에서 전량수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강화
  - 참쌀이모작 재배에 대한 기술도입 및 경관농업 사업확대
- 한과 R/D 혁신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기능성 한과 및 신제품, 신상품 개발을 촉진시키고 나아가서 한과명인의 자산적 가치 증진, 기술적 인프라 확충, 협력체계 등에 관한 포천시 조례제정이 필요함
  - 농업기술센터 내 과일렛 플랜트 설치를 통해 농가와 지역업체의 협력적 구조 정착
- 농촌관광 및 농장교육시스템 도입으로 한과문화 확산이 필요이며 이를 위해 지역 교육청과의 MOU 체결
- 한과명장 브랜드 리스제도 도입으로 한과시장 진출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무형적 자산가치 증진이 필요함
- 독자적인 한가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도입 : 창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프랜차이즈를 확대하고 이를 한가원 전국 네트워크화에 활용

## 무안 고구마 클러스터

## ■ 사업추진계기

- 최근 무안군에서는 2003년 무안군 등록상표 '황토랑' 관리조례를 제정, 무안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공공장 설치, 무안황토랑유통공사설립, 공동브랜드사업, 판로확보사업 등을 통해 마늘, 양파, 고구마 등을 중심으로 품목을 육성하고 있음.
-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 고구마에 대한 인식이 웰빙식품, 기능성 식품, 다이어트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수요증가에 힘입어 재배면적이 2002년 72ha에서 2007년 283ha로 크게 증가 하고 있음
  - ※ 지금까지 무안지역 고구마는 80년대 말까지 재배면적이 2284ha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구마 주산지이었으나 구황작물이나 보조식량 개념으로 인식되어 시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음

- 이와같이 고구마 산업 부흥과 생산부터 가공유통에 이르는 복합가공식품 산업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을 전개하여 왔음



## ■ 농어촌 기업생태계 구조

### ○ 고구마산업 조직화

- 사업 초기에는 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므로서 “편안한 농사”에 대한 인식확대 및 중소농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대농은 관망하는 자세였음

\* 관망하는 이유 : 대농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인력, 시설로 사업단 참여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함. 계약재배에서 나타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음.

- 그러나 사업단의 사업목표를 ‘농민의 성공’ 즉 소득증진에 두고 위탁판매제를 도입하고 기존 거래처의 조정업무를 대행해줌으로서 대농의 참여를 이끌어냄

- 사업단이 기존 고구마 농가의 기술적 노하우 공유를 촉진시키고 재배 메뉴얼 제작 보급으로 함으로써 농업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표준기술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 지금은 토글토글 친환경 유기농 포럼을 통해 기술노하우, 정보, 종자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의 상향표준화를 추구하고 있음

- 산학관련 지식공유 체계확립 : 포럼, 세미나, 워크숍, 자문단회의, 국내외 선진지견학, 사업설명회 및 현장설명교육, 참여농가 DB화 추진

### ○ 고구마 산지유통사업 전개

- 사업단에서는 고구마 유통 거래처를 관리 조정하며 고구마 대농의 참여를 유도하며, 초기에는 유기농 고구마 농가부터 통합 관리하는 측면으로 접근.

- ▶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다가 물건수급과정에서 대농과 사업단의 협력 신뢰관계를 구축 하였음.
- 또한 계약재배형태보다 위탁판매형태로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위탁수수료는 산지 유통 시설 이용 수수료 수준으로 책정하고, 초기에는 손익 분기점 돌파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했음. 이는 가격하락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사업단이 책임지고, 유통사업을 전개 하면서 농업인의 협력을 이끌어냄.
- ▶ 위탁판매사업 수수료는 산지유통시설 이용 수수료 개념으로 책정이되며 매출액의 2% 정도임. 이후 수수료 수익이 연간 2억 5천만원에서 3억 원 정도로 향상되었음
- ▶ 수수료 : 현재) 매출액의 3% ▷ 향후) 매출액의 2%



○ 고구마 가공사업 전개

- 사업단은 1차 가공, 기능성식품, 기능성 원료, lactic acid 등 고구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R/D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과 기술이전 사업화를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협력업체의 영세성과 사업단의 자금력 부족 등을 겪고 있음(death valley)
  - ◆ 현재 사업분야 매출규모는 전체의 1/10 수준으로 약 10억원 정도 수준으로 대부분 '길거리 식품' 산업화부분임
  - ◆ 또한 고부가 기술 관리 부족으로 1차 단계, 2차 단계, 고차 단계별 기술이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구마 계통도

고구마가공업체 기술이전사업화

- 이에 고차가공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 유통망 개척을 추진하고 있음

- ◆ 최근에는 가공사업에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냉동 군고구마 사업과 막걸리 사업 개척 추진
- ◆ 제빵, 제과, 분말사업은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을 일본 업체와의 협력 등으로 신사업 전개 추진



일본 페스티바로사로부터 고구마 페이스트 제조과정 기술이전

### ■ 생태계 중간지원

- 무안고구마를 최고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 무안황토고구마클러스터 사업단 설립
  - 공동브랜드 ‘토글토글’ 개발 및 이용 촉진 : 고구마부터 가공식품에 이르는 전품목
  - 체계적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큐어링, 세척 및 건조, 선별, 포장, 저장, 집하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 구축
  - 연구개발 : 품종개발, 가공식품개발, 재배관리메뉴얼 개발, 향토음식개발, 기능성연구 등
  - 혁신역량강화관리 : 토글토글 여성 아카데미, 유기농포럼, 친환경교육, 심포지움,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
  - 사업단 조직의 회사체제로의 전환 및 운영 : 주식회사 농업법인, 고구마가공식품전문회사,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



○ 선순환 체계 기여

- 주식회사 농업법인은 농업인, 영농법인, 가공법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설치하여 고구마작목반장, 영농회사 대표가 이사회를 구성,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였음.
- 또한 가공사업, 유통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주주(농업인)에게 출자전환하여 지역민이 사업단 조직을 신뢰하고 유통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가공사업을 전담하는 회사 「에그린」 을 2010년에 설립하여 고구마기술을 40년동안 연구한 과학자의 기술을 도입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었음. 이렇게 생산된 상품을 사업단 조직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음.

■ 시사점

- 무안 고구마 산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거치지 않고 클러스터로 조직화시켜 무안 고구마 산업의 공식적 기능을 정착시킨 우수사례라 할 수 있음. 향후 과제는 이윤 창출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고구마의 인식이 구황작물에서 웰빙식품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고구마에 대한 수요가 변화되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고구마 산지유통사업을 해남 고구마의 유통 판로를 이용하여 광역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일본 히로시마 사례’를 참고하여 광역 네트워크화를 전개하여 대형유통업체, 홈쇼핑 등 고부가 유통망 구축을 통해 위탁판매제 수익개선과 유통 다각화 추진

일본의 히로시마는 3개의 정을 광역 6차 산업화로 조직화하고 있으며 15년동안 네트워크화에 주력하여 지역별 분업화 체계를 구축하였음. 이런사례를 참고하여 무안, 해남 등 전남지역 고구마 산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구마클러스터 중심으로 개발한 공동브랜드 ‘토글토글’을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길거리 가공 상품은 브랜드 개편이 필요함. 토글토글이 쌓아놓은 이미지의 하락이 될 수 있음.
  - 포장 디자인, 브랜드가치 개선(길거리 식품 브랜드 등)
  - ‘토글토글’은 고가 브랜드로 사용하고, 토글토글에 못 미치는 저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두가지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기업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사업부문별 소사장, 마을기업을 설치하여 가공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지원 조직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함
  - 고구마 생산 및 유통부문은 중간지원조직 마케팅 부분에서 지원하고, 가공업 부분은 기술지원 마케팅 부분에서 수수료 사업을 통해 지역 농어촌산업 생태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소사장 기업과 자회사(AGRIN)의 협력관계를 체계화시키고, 소사장 기업들에게 지분을 주어 소사장 기업도 제품개발에 참여시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무안고구마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귀농 체험 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 귀농·귀촌자 중 전문성 있는 인력을 귀농 학교를 통해 사업단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폐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8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고구마사업을 지역 사회 공동체 형성의 가교 역할 담당

## 서부충남 양돈클러스터

### ■ 사업추진계기

- 충청남도는 전국 대비 돼지사육두수 비중이 22%를 차지할 정도로 양돈산업의 비중이 높음. 이 가운데 약 72만두 규모가 충남 보령, 홍성지역에 약 7.5% 비중으로 집중되어있음
- 이 지역은 광천읍, 결성면, 청수면, 천북면이 양돈 집단사육 단지라는 지역특성과 이를 기반으로 영농조합법인 '농가원'이 사업적 중심 활동을 해오면서 양돈산업을 특화시켜왔음
  - 이 지역에서는 2005년부터 9개농장이 협력하여 공동영농법인 '농가원'을 설립하여 사료 사업을 전개하여 왔음
- 이와 같이 양돈산업의 비중이 높은 보령홍성지역은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동안 추진하면서 참여농가 역량강화, 브랜드개발, 유통조직 구축, 돼지 카페 설치 등 양돈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였음

## ■ 농어촌 기업생태계 구조

### ○ 양돈산업 조직화

- 양돈클러스터에서는 농가원 사료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종돈, 사료, 분뇨처리 서비스를 양돈농가에 지원해주고 양돈농가는 일정액의 수수료 정도만 부담하도록 농가참여방식을 개선시켜 종돈, 사료, 분뇨처리 등을 통일화시켜 돈육 품질 고급화시킴(OEM 방식이 아닌 ODM방식으로 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농가원 사료사업 방식 : ODM 방식은 월별로 가격조정을 함으로써 사료비 절감과 가축분뇨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있고, 이방식이 도입된 이후 개별농가입장에서는 두당 1.5%~2%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농가당 순수익도 연간 7,000만원 정도로 향상됨.

일반적으로 대규모 양돈농가에서는 사료회사와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고, 일반적으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으로 함.

사료회사의 제품은 세 가지는 OEM(위탁 제조), ODM(사료회사 기술진과 농가가 협의해서 만드는 것), 일반제품(사료회사의 본 제품)임. 그중 가장 저렴한 것은 OEM, ODM, 일반 사료의 순임.

- 사업단은 농가원에게 사양관리, 가축분뇨공동처리장, 사료 세 가지 사업분야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양관리의 80% 정도를 농가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양돈사업단은 사료통일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농가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100여개 경종농가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순환형 농업지원

### ○ 주식회사 행복의 돈육 차별화 및 수출활성화

- 주식회사 행복은 마블로즈를 공동브랜드화하여 돈육 차별화를 통해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있음,

\* 고품질 마블링 돈육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하여 초창기에는 사료에 어분을 첨가하여 'DHA가 강화된 돼지고기' 개발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식물성 사료첨가제 유채꽃으로 대체하여 DHA, 오메가 3 돼지고기에 성공하여 시장에 론칭하고 있음

\* 돼지고기 생산 이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신선한 '오메가 3' 국내산 프리미엄 포크 마블로즈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또한 돼지고기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선호 부위 등심과 후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 ○ 지역 특화 브랜드 돼지카페 마블로즈 론칭

- 주식회사 행복이 운영하는 돼지카페는 체험관, 가공장, 판매장, 식당, 세미나실 등을 시설을 갖추어 '축산농가-도축장-경매사-도매유통업체-정육점-식당-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단계를 '축산농가-도축장-돼지카페-소비자'의 단계로 대폭 개선해 20%의 유통마진을 줄여 판매하므로써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불균형 해소

- 돈육(豚肉) 중 비선호도 부위인 앞다리 살, 등심, 뒷다리 살을 ‘가열햄’으로 가공하여 공동 브랜드 ‘참지움’으로 판매사업 전개. 소비자 주문형 방식을 도입하여 소비자 인식 향상시킴
- 돼지카페 운영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체계 구축
  - \* 돼지카페의 자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존 주주와 신규 소액 주주 간 출자금 조정 논의 필요성 증대

○ 대외협력사업 확대

- 지리산 흑돼지사업단에 ‘오메가 3 사료’를 공급 판매하는 사업 전개
- 일본 Asahi Supply 社 자본유치 및 돈가스 반제품 가공 수출 추진
- 돼지태반 가공제품 수출 추진 :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수출을 위해 주식회사 L연구소와 협력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가열햄 개발 및 수출추진
- 돼지카페를 모델화한 프랜차이즈 진출 : 직영판매장 및 식당 진출 (홍성, 천안, 대전 등)

○ 클러스터 사업의 효과 증대로 양돈농가 참여확대

- MSY(Marketed-pigs per Sow per Year) 생산성이 17.8두로 우리나라 평균 MSY 15~16두 보다 비교적 높음
- 클러스터 사료사업을 통해 최근 구제역 피해영향이 거의 없었음

■ 생태계 중간지원

- 양돈클러스터에서는 사업단을 주식회사 ‘행복’으로 전환하고 농민, 영농법인 농가원과 체계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활동을 지원
  - 우량종돈 품종개발 및 공급
  - 고품질 우수사료 개발 및 공급(오메가 3 사료)
  - 경종농가와 연계된 자원순환형 분뇨처리 지원
  - 표준사양관리 프로그램 지원으로 계획출하
- 충청남도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산어촌복합자원화사업을 품목에 관계없이 농업정책과가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
  - 사업의 경계 범위(boundary)를 제시하고 사업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역량에 맞게 지원(support)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

- 동시에 사업단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충남 농어촌 산업 클러스터는 융복합에 초점을 두고 있어 6차 산업화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충남도청에는 임업, 축산, 수산과 등 여러분야의 행정조직이 있지만 품목관련 부서에 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클러스터사업 수행이 어려움. 이에 농업정책과에서 이들 사업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내부역량을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충청남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발전연구원, 사업단 공동으로 사업방향, 제품개발, 컨텐츠, 마케팅 4개의 분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음
- 워크숍을 통해 사업단과 농업법인의 내부역량 즉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이 성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처럼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사업단은 1년의 조정기간을 거쳐 내부역량 강화 후 본 사업에 진입하여 성공한 케이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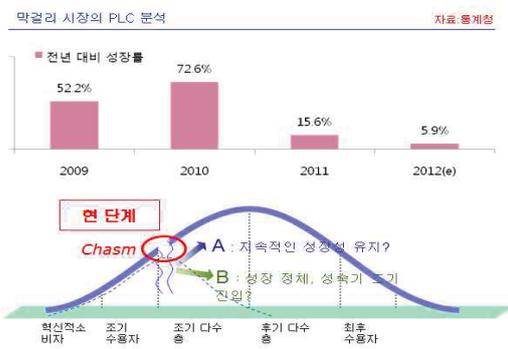
## ■ 시사점

- 클러스터 사업단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체계로 늘릴 필요가 있음. 1년 준비기간, 3년 하드웨어 구축, 1년 영업 및 마케팅으로, 단계별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1년 준비와 1년 영업기간을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 (준비기간 1년은 시군지자체 지원, 영업기간 1년은 도 광역지자체 지원방식 채택)
- 지역전략 식품사업은 품목에 관계없이 1차 산업 중심에서 고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어촌산업, 식품산업 관련부서에서 중간지원
-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다수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지금 현재 대부분 주식회사 행복이 중심되어 출자금 배당방식과 사료, 종돈, 가축분뇨사업에서의 표준화방식을 도입하여 농업인의 참여확대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사업의 다각화(사료개발, 돈육차별화, 가공 및 수출확대)를 통해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음
- 더 많은 농가의 참여를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행복은 협동조합의 자회사 개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돼지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농가원(종돈, 사료, 가축분뇨)과 도축장, 돼지카페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여 생태계 건전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R/D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자회사)을 통해 상용화지원

# 경기막걸리세계화

## ■ 사업추진계기

- 최근 막걸리시장이 2008년이후 부터 성장하면서 소주, 맥주에 이어 3대시장으로 부각되기 시작함
  - 이는 막걸리의 품질(맛, 향, 원료성분)의 고급화와 소비자 인식의 전환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임
  - 시장구조는 소주, 맥주시장에 비해 완전경쟁구조에 근접해 있고 규모도 소규모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며 체계적 마케팅 영업구조를 가진 기업이 극소수임
  - 이에 따라 막걸리 시장은 죽음의 계곡(chasm)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한 패러다임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서울(장수 막걸리)와 경기(국순당, 포천이동막걸리)가 시장의 경쟁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 대내외 시장여건

- 막걸리 시장에서의 소비 구조 - 소비탄력성의 구조
- 가격탄력성 비탄력적(가격상승은 소비하락)
- 대체탄력성(맥주소비상승, 막걸리 소비하락)
- 전통주 보완재, 소득탄력적(소득상승, 소비상승)
- 한·EU FTA 등 발효로 위스키 수입에 따르는 막걸리소비 대체 현상이 부각될 전망



-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회와 위기 상황에서 연간 3,000톤의 경기쌀 소비와 막걸리산업 성장(년10%이상)을 위해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을 중심으로 클러스터화하고 있음



■ 농어촌 기업생태계 구조

- 최근 기후변화 등 이상기상 현상과 세계곡물가격 급등 등으로 식량수급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에서 원료농산물 확보가 시장에서의 경쟁력 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막걸리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안정적인 원료농산물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막걸리 경쟁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막걸리 생산체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막걸리 원료곡 계약재배 추진.
- 산지에서는 막걸리산업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화 및 쌀산업활성화를 위해 ‘경기 김포쌀연구회가공미단지’를 중심으로 ①가공원료곡 생산단지 규모화, ②생산비절감, ③조직화를 이루어 가공산업과의 협력파트너로서 성장하고 있음
  - 특히 김포쌀전업농김쌀연구회 및 (주)우리술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김포시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으로 계약재배를 2010년 100톤(안다벼, 16.7ha)규모에서 2011년 300톤(안다벼, 50ha), 2012년 300톤(보람찬, 42ha)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다자간 협약>



<공동육묘장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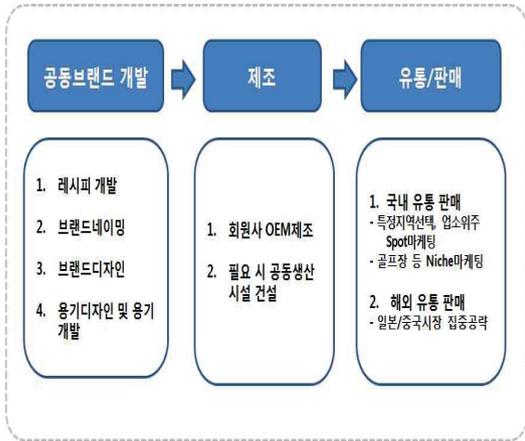
<생산단지 조성>

<막걸리 원료곡 계약재배 다자간 협약>



<계약재배 양해각서>

- 경기도 막걸리 공동브랜드 ‘숨’을 중심으로 가공업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생산 시설활용 및 양조장 OEM 사업을 통해 국내유통과 해외판로 개척을 전개하고 있음



막걸리 가치사슬 체계



경기도 지역 양조장 분포도

### ■ 생태계 중간지원

-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은 회원사와 비회원사 46개업체의 막걸리 유통판매사업의 촉진과 입국생산 및 공급. 공동브랜드 개발 및 리스를 통해 막걸리산업촉진에 기여하고 있음
  - 미생물공동이용시설, 입국공급
  - 회원사 OEM 제조
  - 국내유통, 수출기반 조성
  - 공동브랜드 ‘숨’ 개발 및 마케팅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 High-end market(극소수의 최상류층을 겨냥한 고급 브랜드 판매활동),
    - Quasi-premium Market (준 프리미엄 시장)
    - Regular Market (대중적 시장)



\* 2012.4.15 설치 완료, 시운전 후 현재 가동 준비 완료



-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김포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계약재배 촉진 및 막걸리개발 유통지원 추진
  -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계약재배 : 가공용 다수확품종 계약(보람찬, 안다벼 등)
  - 막걸리 원료곡 최적 재배메뉴얼 개발
  - 원료곡 종자증식 및 보급체계 구축
  - 도정기술 도입
  - 생산자, 우리술 가공업체 ‘공동현장평가회’ 개최 : 쌀품질, 생산성, 계약단가 등 협의 기여

**막걸리 원료곡 계약재배 애로사항**

- 막걸리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일반미는 가격이 높아 막걸리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어 시장경쟁력 저하
  - 6% 쌀 막걸리 1ℓ 생산시 쌀 150g 소요 (750㎖ 쌀 113g)
  - 막걸리 1병(1ℓ)에 필요한 쌀 가격은 수입미 98원, 경기미 316원
  - 다수계 경기미 양조용 원료 사용시 수입미 98원 대비 원료곡 원가 142원 상승
- 계약재배 가격협상시 수확기가격과 단경기가격 절충형으로 진행, 합리적기준에 대한 상호신뢰가 필요한 실정임
- 자연조건에 따른 가공용 쌀 생산 변동성으로 계약재배 물량조정 곤란
- 생산자와 가공업체를 중재·조정하는 계약재배 중간지원조직 필요

■ 시사점 : 경기 막걸리산업 활성화 방안

- 대내외 환경변화
  - 경기미 생산량 400,000톤 대비 막걸리 생산원료곡 3,000톤 비중이 1%내외로 향후 2% 내외로 “경기도 원료곡 생산목표” 계획수립 필요
  - 국내 밥쌀용 쌀 재고 부족이 예상되므로 가공미확보 및 생산성증진 필요

**막걸리 시장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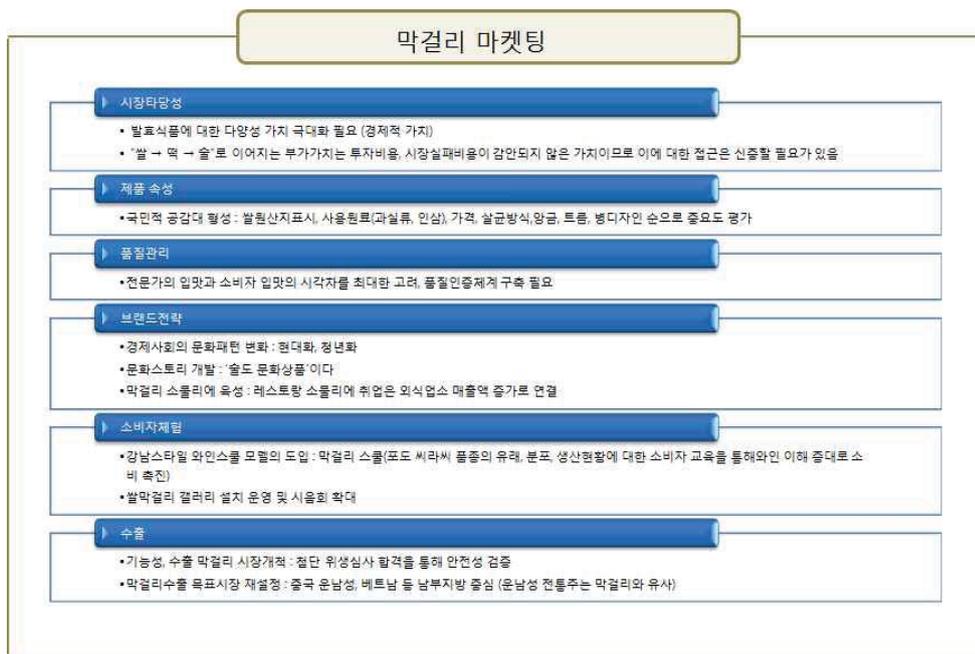
-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하락하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또한 맥주소비가 증대하면 막걸리 소비는 하락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전통주와는 보완재이며, 소득탄력적임
- 한·EU FTA 등 발효로 위스키 수입에 따르는 막걸리소비 대체 현상이 부각될 전망

○ 원료곡 산지유통사업 개선

- 초다수성 가공용 전문 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자율교환채종포 품질 관리 및 검사 시스템 도입
- 저가 원료곡 공급시스템구축 : 생산비 절감운동 전개
- 농업인 산지유통사업 활성화 : 농업법인 매취사업 추진, 자조금제 도입
- 우리술의 명성을 활용한 농업법인 유통채널 공유
- 원료곡 계약금 지급 보증제 도입 필요 (신용보증보험, 재해보험 검토)

○ 산업조직화 및 혁신

-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 사업은 다수의 업체 공동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 막걸리산업의 중간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업체의 호응도 증대를 위한 공동브랜드 리스제 도입 및 프리미엄 시장 공략
  -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도입
  - 업체간 산업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농상공연대)
  - 막걸리 원료곡 공선출하회 지원 및 운영
  - 원료곡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막걸리산업과 농업의 공동투자 및 주식회사 농업법인 설립, 주주배당으로 보조금 없는 산업으로 정립
  - 공동농업법인은 막걸리판매 및 수출, 입국판매사업(양조장) - 現 연간 13,500톤(200억 규모)



## IV. 시사점 및 활성화방안

### 1. 농어촌산업 상생협력 및 혁신의 의의

- 한국농업이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경제 속에서 한국농업의 자본축적 촉진과 여타 산업과의 상생 소통하는 농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최근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신활력사업, 지역특구지정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의 혁신을 추구하였으나 클러스터 대부분이 동종업종 산학관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이업종 산업의 기술, 노하우, 경영, 마케팅 연계기능 부족
  - ▶ 시장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부족
- 농업 R&D 플랫폼 산업생태계 구축지원
  - 1차산업중심, 2차산업중심, 3차산업 중심에서 각각 고려하여 지역특화품목, 농어촌부존 향토 자원, 지역문화자원 그리고 미산업화 자원을 신뢰적 자본과 연계시켜 생태계 다양성과 확대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신뢰적 자본의 전환 : 계약재배 → 출자방식, 브랜드리스, 수수료체계사업
    - R&D 혁신 : 농정거버넌스 속에서 농업R/D 산업화
- 농어촌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기본관점

#### 기 본 관 점

- 자본주의 4.0 체계 속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농협, 농업법인, 도시자본 등)의 공유자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
- 시장 원리에 입각, 시장실패 최소화 지역개발과 농업개발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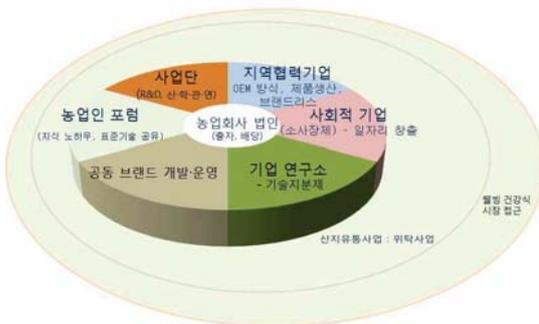
## 2. 주요과제

###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식회사 농업법인 설립지원 체계 구축

- 지역농업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융복합화 전개로 지역소득 창출
  - 생계형 농업에서 산업생태계 농업으로 전환 및 농업의 자본화 촉진
  - 출자와 배당으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주주참여 확대
- 주식회사 농업법인 중심 산업조직화 모델
  - 유통, 가공, 식품 등 농식품 산업의 지역농업 연계 지원 : 농업법인의 도농 공동투자 및 수출 마케팅 지원 필요
    - ※ 공정거래 제도화(계약, 분업, 제휴), 상생협력관계 구축(공동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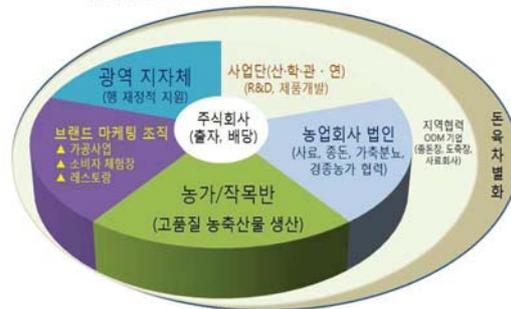
[모델 III] R&D 혁신기반 산업조직화

- 무안 고구마클러스터 사례



[모델 II] 지역브랜드 중심 산업조직화

- 서부충남 양돈클러스터 사례



### 농어업 주식회사 유형화

- I (지역부존자원개발형) : 산지상품×외식·교류·수출형태
- II (자원순환형) : 농림업×다양한 기술/농림업×신선판매·수출형태
- III (농산물 브랜드 명성형) : 가공품·산지×고객유치·교류 또는 가공품·산지×판로·판매형태
- IV (신재생에너지형) : 농림업×고차가공기술 또는 농림업×신기술 형태

### 기대효과

- 새로운 성과창출 및 이익공유제 확산
-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역혁신모델 도입

### ■ 전통적인 농업에서 새로운 영역확대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신연계 협력사업 전개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필요
  - 새로운 협력관계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농공상융합, 6차산업화 촉진
- 전통적인 농, 축, 임, 어업과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등) 그리고 농식품 및 고차가공산업 등이 전후방으로 융복합 촉진
- 시장에 새로 진입하거나 탄생하는 기업들이 많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적 경쟁, 융복합화, 동반성장 유도
- 다양한 창업/보육 및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환원 및 부가가치 증진, 일자리 창출
- 신시장 및 수출개척이 가능하도록 「교류→거래관계확립→전략적 제휴관계 확립 → 성과탐색 → 성과창출」 방식으로 수익모델 개발 지원

### ■ 지역혁신 수익모델

- 지역에서는 농업 다각화를 위해 지원, 육성, 마케팅, 판매 등 중간지원 적극적 추진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운영
  - 가공사업 R/D, 창업보육, 파일럿플랜트 설치 및 사업화 전개
  - 농산물 계약재배 및 저장기술 지원
  - 식품 가공사업협회 생산지원,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 판로개척 지원
- 유통사업단은 회원사와 비회원사의 농식품 유통판매사업의 촉진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리스, 시설공동이용을 통해 농어촌산업 활성화 촉진
  - 공동이용시설, 회원사 OEM 제조
  - 국내유통, 수출기반 조성
  -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계약재배 촉진 및 농식품개발 유통지원추진
  - 원료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계약재배 : 가공용 다수확품종 계약, 최적 재배메뉴얼 개발, 원료곡 종자증식 및 보급체계 구축, 가공기술
  - 생산자, 가공업체 ‘공동현장평가회’ 개최 : 품질, 생산성, 계약단가 등

[모델 IV] 식품종합기술지원센터 중심 산업조직화 [모델 V] 유통사업단 중심 산업조직화 [모델 VI] R&D 플랫폼 중심 산업조직화



○ 지역산업생태계 조성 및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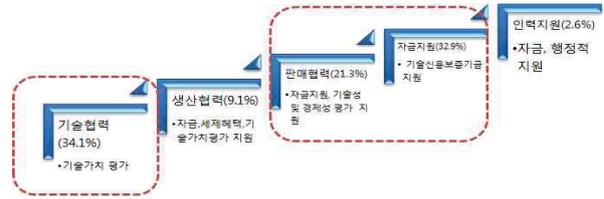
- 지역농업 R&D는 주식회사 농업법인, 협동조합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농업기술 이전 사업화 전개
- 지역 R&D기관과 기업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학문영역 융복합화)
- 지역과 해외 국가(기업)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기술이전사업화로 선진기술 수출
- 지역 혁신거점을 거점으로 한 기술사업화 세금혜택 제공
- 로얄티 세금면제, 협동조합 협력시 세금면제, 혁신활동 5% 인센티브 제공 등
- 국내외 우수인력을 지역식품기업에 공급

지역혁신 중간지원조직 육성

- 농어촌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빠듯한 수익구조와 이익배분, 비용분담, 리스크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정에 대한 중간지원기능 도입이 필요함
- 신뢰적 가치에서 오는 갈등과 사업과정 속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신규참여에서 오는 갈등 등 해결
- 중간지원 방향
  - 신규참여 지원 : 창업 및 인큐베이터 지원
  - 사업과정 활성화지원 : 자금 및 세제혜택, 이업종교류지원
  - 신뢰적 가치 제고지원 : 계약과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적 법적 지원, 협력기업의 기술적 가치평가지원



<그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체크포인트



<그림> 사업단계별 주요 지원 내용

■ 중간지원 조직 주요임무와 역할

- 경영자원의 융합, 소비자 니즈가 높은 새로운 상품 및 신사업 개발, 젊은 층의 취업 등 새로운 고용개척, 프로 경영자 및 법인 육성 지원(도시근로자 실질소득 수준까지 지속적 육성)
- TLO, 농공상융합 지원
- 귀농/귀촌 전문인력, 창업농(1인 창조기업), 겸업농, 도시농 중점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 기술, 경영 컨설팅 지원, 파일럿 플랜트 지원 등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역클러스터와 연계된 지역혁신조직 구축

구분	내용
지역적범위 및 중간조직	도 광역단위 지역별 농업혁신센터 설치
행정조직지원	공공조직(도, 시군청)의 중간지원조직 출연 투자(단기 3년후 회수)
농어촌 기업생태계 구축	농업과의 협력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법인 주식회사 설립 (공동투자) 및 가공사업 다각화</li> <li>- 사업단조직의 유통사업 확대 (매취사업)</li> <li>- 협동조합 공동설립 및 교육사업 활성화</li> <li>- 농업과 식품가공산업 연계 매칭 코디네이터 육성 (B to B)</li> </ul>
	생태계 진입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과 건강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관연 체계의 클러스터 설립(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 R&amp;D 기반 기업연구소 및 고급인력 유치 및 확보</li> <li>· 최첨단기술을 개발, 고부가가치를 다시 농업법인, 협동조합, 첨단교육시스템을 통해 농업부문에 이전, 농업을 고부가가치농업, 수출농업, 기술수출 농업으로 육성</li> <li>1) 중간지원조직 구축 : 지역별 농업혁신센터( B to B (G) 수익모델 도입</li> <li>2) 기업연구소 유치</li> <li>3) 주식회사 농업법인 (또는 협동조합) 활성화</li> <li>4) 첨단농업교육센터 설립운영</li> </ul>

<p>농 어 촌  기 업 생 태 계</p>	<p>혁신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지방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 R/D혁신체계 구축 : 혁신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 프로젝트의 탐색과 개발</li> <li>- 혁신 연계체를 이용한 지식 이전</li> <li>- 새로운 식품 비즈니스의 도입 촉진</li> <li>- 비즈니스와 지식조직 간 중개알선</li> <li>- 국내외 직접투자 탐색</li> <li>- 컨퍼런스</li> <li>- 협회조직</li> <li>- 국제 브랜드화</li> </ul> </li> </ul>
<p>구 축</p>	<p>신뢰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사업단조직, 협동조합, 농업법인 연계 신뢰구축 : 기술이전사업화, 교육에 대한 혜택제공 (로열티 등)</li> <li>- 농업 컨설팅 전문화로 농가수익성 확대</li> </ul>

**부 록**

**농촌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협업프로그램**

농촌산업 관련된 주체들이 운영효율성이 높아져 지속적인 개선과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고 기업들 간의 협력으로 신제품이 활발하게 나오는 상태로 농촌산업 비즈니스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농촌산업 생산성 향상 협업방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생산성 향상 협력프로그램

		Level I	Level II	Level III
협업과정		계약생산	분업생산	제휴생산
협업범위		지역중심	지역중심	시장중심
역 할	협업주체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또는 생산자단체)· 공업인·유통인 연계 조직	컨소시엄 조직
	중간지원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협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협	농업법인
	협업대상	상·공인	상공인 또는 위탁 사업자	국가/광역/지역클러스터
단계별 협업내용	단계별	내 용	단계별	내 용
	1단계	농산물 적기·정량 출하관계 형성	1단계	원료농산물 지속적 공급
	2단계	수매가격의 합리적 협상 및 협력적 관계형성	2단계	농업회사법인, 외식 법인 공동투자 설립 및 운영
	3단계	농산물 공급사슬 계약 관계형성	3단계	종자, 종묘 공동생산
			4단계	지역과 지역의 농식품 생산 분업 및 OEM 방식
협업단계 적용범위		1~3단계 전체 적용	·농상공 연계조직 : 1~3단계 ·위탁사업자 : 4단계	1~2단계 전체적용

○ 유형별 품목별 협력프로그램

비즈니스 유형별	비즈니스 품목별	협업내용		
		Level I	Level II	Level III
농산물브랜드 명성형	쌀	·농인인과 농협·영농조합 계약 생산 ·상공인 계약 공급	·생산분업 ·OEM 제조분업	·연구개발 제휴 ·판매제휴
자원순환형	규격외 농산물/산 림자원	·지력증진 및 탄소상쇄 영농 ·규격외품 가공품 활용	·제조 공급 분업화	·시험협력 ·품질향상 협력
신재생에너지 이용형	기능성 채소/인삼	·상공인 계약 공급 ·기능성 농산물 우수성 공동홍보 (전시회 판촉등)	·기능성 농산물 및 종자 생산 수평적 협력	·기능성 농산물 공동개발
지역부존 자원개발형	농산 부산물	·농산부산물 계약수매 (수매가격 합리적 제시)	·공동투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외식프렌차이즈, 지자체의 MOU ·향토외식업 전개	·신상품 공동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 협업주체의 생산성 향상 자가진단표

구분	항목	배점	항목별 점수	
		100		
지역 중심 (70점)	계약 생산 (23점)	지역과 기업의 농산물 공급 계약관계 형성	7 -지역과 기업이 공동으로 계약서 작성(7) -구두계약(3) -계약없음(0)	
		지역과 기업의 농산물 출하물량 조절 및 관계형성	10 -계약조건에 따라 농산물을 적기적소에 공급이 가능함(10) -기업이 원하는 품질의 농산물 공급만 가능함(7) -농산물 공급이 계절별로 편차가 큼(3) -농산물 공급관계가 없음(0)	
		지역과 기업의 수매가격의 합리적 협상 및 협력적 관계 형성	6 -농산물 공급가격은 기업과 지역이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여 추진함(6) -농산물 공급가격 결정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외부 기관 자문에 의해 결정함(3) -농산물 공급가격 결정을 기업 또는 농업인 독자적으로 결정함(0)	
	분업 생산 (47점)	기업과 지역의 농식품 생산 분업 및 OEM 방식 관계 협력	2 -지역의 농식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유통업체, 제조업체와 분업하여 생산함(2) -생산부터 가공 유통 전과정을 지역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있음(1)	
		지역의 제조업체 농산물 공급 형태 분업화	17 -농업인, 상업인, 공업인의 역할분담차원에서 상공업인과 함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함(17) -지역제조업체로부터 원료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음(5) -지역제조업체와 관계없이 농산물을 생산함(0)	
		농업회사법인과 외식법인 공동 투자운영	13 -지역제조업체, 유통업체와 연대하여 농업법인을 창업 운영 하고 있음(13) -지역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와 연대하여 농업법인을 창업 운영하고 있음(7) -개별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음(3)	
		기업과 지역의 종자, 종묘 공동생산	15 -지역제조업체,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농산물종자, 종묘를 생산 하여 지역농가에게 공급하고 있음(15) -지역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종자, 종묘를 지역농가에게 공급하고 있음(10) -작목반 또는 법인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에게 보급(3) -개별적으로 종자채종형태로 운영(1)	
	시장 중심 (30)	채휴 생산 (30)	기업과 지역의 기능성 농산물 공동개발	19 -기능성 농산물 개발 및 생산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음(19) -기능성 농산물 생산체계만 갖추고 있음(10) -일반농산물 생산유통체계만 갖추고 있음(5)
			기업과 지역의 신상품 공동개발	11 -신상품을 개발할 때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과 시장조사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음(11) -신상품 개발후 시장조사 및 론칭준비를 하고 있음(5) -시장조사.정보에 관계없이 상품개발에 치중하고 있음(1)

‡ 자가진단표 활용법 : 협업프로그램 도입 전과 도입 후를 비교 검토하므로서 협력조직 또는  
컴소사업 조직의 활성화 정도 분석

---

---

농업경영정보/2012-1

## 농어촌산업 상생협력 실태 및 활성화방안

발간등록번호 : 71-6410563-000036-01

---

발행일 : 2012년 11월

발행인 :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편집인 : 연구개발부장

집필자 : 이진홍, 조광래, 박인태, 최병열, 서재순, 김희동

발행처 : 445-784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 작물개발과

(전화 031-229-5788, 팩스 031-229-5962)

인쇄처 : 진영인쇄 031-244-6022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접촉됩니다.

---

---